김정일주의 만세!

위 회 당 중 앙 원 기 동

제 2 4 7 2 9 호 】 주체 1 0 3 (2 0 1 4) 년 11 월 12일 (수요일)

령 도 자 卫

과

김정은동지

오늘 우리 조국은 필승의 기상과 활 력에 넘쳐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격변하는 새시대의 한복판에서 불패 의 위용을 떨치며 기적과 변혁의 한길 로 폭풍쳐나아가는 선군조선의 현실은 세계정치계와 인류의 이목을 집중시키 고있다. 무슨 힘이 조선을 중첩되는 난 국을 맞받아 강성국가로 솟구치게 하며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고가는가 하는것 이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 니다.》

나라와 민족의 생명력은 당파 수령의 령도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은 조국과 혁명을 승리의 한길 로 향도하며 이 땅우에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울것 이다.

우리 당의 령도는 새시대의 생눈길우 에 조선혁명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강력 한 추진력이다.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는 준엄 한 시련의 고비들을 수없이 헤쳐나가 야 하는 전인미답의 길이다. 사회주의 조선의 넋이며 심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는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최대의 손실이다. 전대 미문의 도전과 압살책동이 강성국가건 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가로막고있 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크지 않은 나라를 향해 최신핵전쟁장비들까지 들 이민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이 국제적으 로 련합하여 특대형비상도발사건과 국 가정치테로행위를 감행하고 핵무기사 용까지 공언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세 계무대에서는 구식민지시대를 방불케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책동 이 로골화되고 갈피를 잡을수 없는 복 잡한 사태들이 조선혁명의 앞길에 얽 혀있다. 우리 혁명앞에 나서고있는 임 무의 중대성과 간고성은 력사상 류례 없는것이다. 시대의 생눈길을 헤치고 조선이 나아갈 길은 어디에 있는가.이 것이 우리 혁명의 승패와 진퇴를 결정 하는 근본문제이다.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 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시찰은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물음 에 대답을 준 력사적장거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열어 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은 우리 당이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조선혁명의 불변의 진로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선택은 주체 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비약적발전을 담 보하는 력사적사변이다.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 민이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 의 피타는 자주적열망과 무궁무진한 힘 을 발견하고 빼앗긴 민족의 존엄과 인 민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혁명 이 높이 추켜든것이 자주이며 선군이며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존중, 믿음은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출발점이고 추동력이며 총적목표이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 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주체의 길 은 력사발전의 근본원리가 구현된 정의 의 길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에는 조선혁명이 근 100년간 다져온 힘이 축적되여있 다.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모든것을 우 리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우리 식으로, 우리 힘으로 전진시켜온 자주의 력사이 고 무적의 총대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 를 결사수호하여온 전승의 력사이며 군 민대단결의 위력으로 빈터우에서 세기 적인 기적을 창조하여온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력사이다. 여기에는 근 한세기 에 걸쳐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쌓아 올린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 만년 토대가 집대성되여있다. 자주, 선군, 사 회주의는 사대와 굴종으로 수난많던 식 민지약소국을 백두산대국으로 안아올린 최강의 힘이며 우리 조국을 강성번영의 지름길로 노도쳐 비약하게 하는 거대한 밑천이다.

력사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해온 모든

대결과 위기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근본 적인 문제가 있다. 인민과 자주권중시 인가, 황금과 패권중시인가 하는 리념 문제이다. 조선혁명의 백승의 력사는 인민중시의 리념이 황금중시의 리념에 비할바 없는 힘을 가지고있으며 자주권 중시의 정치가 패권중시의 정치를 타승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자주 성을 옹호하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이 자본주의적,지배주의적리념과 질서 를 불사르고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조 선혁명의 진로가 가르쳐주는 절대불변 의 진리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선택한 우리 당의 결단은 김정은시대가 주체의 한길로 꿋 꿋이 전진해나가는 한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조선의것, 진보적인류의것이라 는 엄숙한 선언이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는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령도는 약 동하는 우리 조국의 생명선이다.

21세기 10년대가 흘러가고있는 오늘 우리 혁명앞에는 예상치 않았던 정황,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 있다.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이 없다면 승리와 영팡으로 빛나던 력사도 순간에 옛일로 묻혀버리고만다. 위대한 계승은 위대한 창조를 요구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2년부 터 현재까지 공식 발표하신 불후의 저작 들은 근 30건을 헤아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건설리론, 경제건 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 우리 시 대의 사회주의수호전에 관한 리론을 비 롯하여 우리 당의 사상리론들은 그 어 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 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주체의 화불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특징 은 첫째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여있으며 둘째로,비상히 독창적이며 변혁적인 전략전술의 집대성이며 셋째로,모든 부문,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사상,리 론, 방법의 백과전서라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에는 어느 분야의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확고한 자주적대가 있고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참답게 개척해나갈수 있 는 폭넓고 뚜렷한 방도가 있으며 천변 만화하는 새시대를 확신성있게 주도해 나갈수 있는 새롭고 고귀한 지침들이 2012년 새해를 맞으며 조선인민군 빛을 뿌리고있다. 급변하는 현시대의 소용돌이속에 정의와 진리의 억센 기둥 을 세워주고 주체혁명의 앞길에 승리와 번영의 진군로를 휘황히 펼쳐주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틀어잡 고있다.

> 어느 민족, 어느 인민을 막론하고 자 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할 때처럼 긍지높고 기쁜 때는 없 다. 양양한 전도를 내다볼 때처럼 환희 롭고 새힘이 용솟음치는 때도 없다. 민 족의 운명에 대한 굳건한 믿음, 팡휘로 운 앞날에 대한 열정은 나라도 인민도 젊어지게 하고 약동하게 하는 무한한 힘이다. 이 신념과 열정, 투지가 있었기 에 우리 조국은 력사의 사나운 풍파속 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자주적대, 주체의 대를 확고히 세울수 있었으며 그 어떤 비판과 답보도 없이 온갖 도발 자들의 광란적인 책동을 혁명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대혁신 을 일으켜올수 있었다. 혁명의 백년미 래를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을 설계하는 민족은 강하다.

> 한 나라, 한 민족이 자기 발전의 길을 드팀없이 걸어나간다는것은 결코 간단 한 문제가 아니다.지난 세기 30년대 에 조선혁명의 진로가 선포된 때로부터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혁명력사의 간고성은 백두산 줄기 줄기와 압록강 굽이굽이에 새겨진 피어 린 자욱이 보여주고있으며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구절이 말해 주고있다. 인민이 곧 정의이며 진리라 는 철석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 현시대 와 혁명의 전도를 완벽하게 통찰하는 인류적인 지성과 다방면적인 천재, 언 제나 인민들속에서 그들의 삶의 요구와 시대의 지향을 파고드는 인민성을 지닌 위인만이 열어나갈수 있는 길이 주체의 길이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길을 바꾸는 민족은 본질에 있어서 시대의 방랑자이 다. 력사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 한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방황하며 병들고 쇠퇴하는가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한 순간에 민족의 운명이 결딴날수도 있는 현세기의 복잡다단한 흐름속에서 조선 혁명의 명맥이 꿋꿋이 이어진것은 우리 조국의 새로운 전진과 발전을 담보하는 행운중의 행운이다.

2

우리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백전백승의 보검이며 비약과 변혁의 추동력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 의의 강력한 보루이다. 주체의 사회주 의가 존재하며 전진한다는것은 곧 지구 상에 정의가 살아있고 인민의 힘이 약 동한다는 뚜렷한 증시이다. 사회주의수 호, 사회주의의 끝없는 발전에 주체조 선의 활력이 있다.

사회주의는 력사의 반동인 제국주의 의 발악적공세를 쳐물리치는 가장 간고 한 투쟁속에서 수호되고 전진한다. 새 세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와 의 대결과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말그대로 전면대결전이며 국가의 모든 정신적, 물질적힘이 총동원되는 총력전 이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총대를 틀어쥐고 사회주의의 우 월성과 위력을 폭발시켜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해나갈수 있게 하는 당 만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최후승리를 이 룩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사회주의의 꺼질줄 모르는 활력과 승리를 위하여 인류가 맞이한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와 심혈을 바쳐 일떠세우고 지켜오신 우리 식 사회주의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자기의 숭고한 리념과 혁명적성 격,본질적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해나가고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을 한손에 거머쥐고 련전련승을 떨치는 우리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수호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무적의 힘이다.

우리 혁명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극 악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 우리의 사상 과 제도를 고수하고 우리 조국을 핵보 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력사의 기적 을 창조하였다. 현 세계에서 핵무기는 유일한 전쟁억제력으로 공인되고있다. 그러나 반제대결전에서 핵무기는 결코 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제국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

최근 조선반도유사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핵무기사용기도가 드러나 세계를 경악시키고있다. 근 70년간에 걸치는 극악한 핵위협으로 우리 공화국 을 핵보유의 길로 떠민 미제는 우리 인 민을 핵선제공격의 희생물로 만들어 세 계무대에서 영영 없애버리려는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미국을 대 상으로 도덕이나 량심을 론하는데 시간 을 허비하지 말라고 웨친 외국의 한 정 치인의 절규는 참으로 지당한것이다. 제국주의는 그 계급적본성으로 하여 모 든 인간적, 리성적능력을 상실한 횡포 무도한 침략자, 략탈자들이다. 우리 혁 명의 반미대결전의 력사는 가장 철저하 고 무자비한 반제투쟁으로 조국번영의 만년담보를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는 철리를 가르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적야망을 위해 감히 무모한 선불질을 해댄다면 선군조 선은 사회주의와 인류를 위해 제국주의 아성을 송두리채 날려보낸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력이며 배짱이 다. 일찌기 세계전쟁사와 동서고금의 군사적경험, 현대군사의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복잡 하고 첨예한 정치군사정세속에서도 령활무쌍하고 림기응변하는 령군술과 무자비한 백두산식대응방식으로 백번 이면 백번 다 원쑤들의 기를 꺾어놓고 순식간에 적들을 제압해나가신다. 우리 식의 위력한 전투함선들과 초정밀화된 전술유도무기체계를 비롯하여 나라의 자위적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적들이 총칼을 빼들면 장검과 대포를 내대는 조선의 기상을 백배해주고있다. 선군의

산악 철령과 오성산으로부터 서남전선 의 최남단 열점지역에 이르는 전군의 싸움준비를 현지에서 직접 료해하고 실 전정황에 맞게 완성시켜주시며 인민군 지휘성원들속에서 먼저 거세찬 훈련열 풍을 일으켜나가시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전군이 실전훈련의 불도가니로 부 글부글 끓어번지고 백두산최정예혁명 강군의 위력이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 있다.

최근년간 나라의 정세는 사실상 준전 시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무적 의 령장을 모신 군대와 인민에게는 준 엄한 정세를 대하는 특유의 관점이 있 다. 원쑤들의 발악은 우리가 전진하고 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 명이라는것이다.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 리의 전통, 제국주의의 영원한 패전의 전통이 인류력사에 장쾌하게 기록되고 있다. 전승의 환희와 희열만큼 시대를 격동시키고 전인민적, 전민족적정신력 을 폭발시키는 힘은 없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 과 변혁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는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압 도해나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

제국주의의 패권적야망의 밑바탕에는 사회주의는 결코 자본주의를 따라앞설 수 없으며 앞서도 안된다는 극도의 멸 시감과 증오심이 깔려있다. 제국주의를 압도하지 못하면 사회주의가 빛을 잃게 된다. 침체와 부진은 사회주의에서 허 용될수 없다.

사회주의에는 제국주의가 가질수도 모방할수도 없는 절대의 힘, 진리로 굳 게 뭉친 인민의 힘이 있다. 사회주의수 호전을 이끄는 우리 당의 령도의 핵은 사상의 힘,인민의 창조력을 제국주의 를 압도하는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나가는데 있다.

천만군민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을 창조와 변혁의 제일무기로 내세우고 새 로운 사상전의 불길, 전민과학기술인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의 로고 화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당의 어쥔 비범한 령도이다.

> 인민,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우리 혁명의 매 단계마다에서 그 위력 을 높이 발휘해온 위력한 사상의 포가 집중포화, 런속포화, 명중포화로 혁명적 사상공세의 포성을 드세게 울리며 전체 인민을 신념의 강자, 기적창조의 대부 대로 위훈떨치게 하고있다. 과학중시, 교육중시열풍이 타번지는 속에 과학기 술인재의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 고 미래와 과학기술이 하나로 결합되고 있다.전체 인민의 창조력을 증진시키 고 천만군민의 심장에 애국의 불길, 투 쟁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온 나라에 체 주의는 인재를 황금의 노예로 리용하지 만 사회주의는 전체 인민을 운명의 주 인, 혁명인재로 키운다. 누가 누구를 압 도할것인가는 명백하다.

우리 당의 혁명방식, 투쟁기풍, 창조 본때는 천만군민의 힘을 활화산처럼 분 출시키는 위력한 추동력이다.모든 일 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실천 하며 집단적경쟁열풍으로 일단 시작한 일은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숨에 해제끼면서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고 혁 신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방식이 고 투쟁기풍이며 창조본때이다. 남들이 열걸음 걸을 때 한달음에 일행천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제국주의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려는 필승의 기 상과 영웅적투지가 여기에 도도히 맥박 치고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새시대의 전형단 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뗘서고 그것을 따라앞서기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이 일 어나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일시에 급 속도로 발전해나가고있다. 군민협동작 전의 위력으로 집중공세, 련속공세를 들이대는 대고조진군속에 수십년세월도 무색케 할 기적의 창조물들이 시간을 다투며 일떠서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 의 열풍이 거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새 것 또 새것을 요구하는 시대적흐름속에 서 기존개념과 방식, 낡은 틀이 깨여져 나가고 세상에 없는 우리의것을 창조하 려는 인민의 지향과 배심이 나날이 커 가고있다. 태양의 성지 금수산태양궁전 으로부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과 교 육자살림집, 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하여 극장과 병원, 유원지와 승마구락부, 스키장은 물론 유치원과 야영소,육아 원과 애육원, 공장합숙과 어촌단풍마을

지어 거리와 마을의 푸른 잔디밭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이 구상하고 결심한 모든 거창한 창조물들이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 전무결하게 일떠서고있다. 당의 결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심은 곧 실천 이며 승리이라는 확신이 천만군민의 가 슴마다에 차넘치고있다.

인류력사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 할수 없는 강한 나라에서 어느 민족보 다 더 훌륭한 창조물을 더 많이, 더 빨 리 만들어 부흥하려는 나라와 민족들의 투쟁의 력사였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 의 어느 갈피에도 오늘 우리 혁명이 처 한것과 같은 엄혹한 환경속에서 그토록 짧은 기간에 천지개벽을 이룩한 례는 없다. 이것은 오직 백전로장도 머리숙 일 령장의 천품과 그 어느 정치가도 따 를수 없는 비범한 령도적수완,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당만이 이룩할수 있는 민족사적공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사회주 의조선의 기적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는 위대한 사랑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불타게 하는 열정과 기적의 원동력이다.

탁월한 전략가, 강철의 령장이시며 창조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슴 뭉클 젖어드는 행복감과 백배로 용솟음치는 힘을 느끼시는 순간은 기쁨 에 넘쳐 웃고 떠드는 인민들과 아이들 을 보시는 때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김정은동지의 거룩한 천품이며 우리 당 의 본성이다.

사랑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깃들어 진할줄 모르는 생기와 활력을 주는 자 양분이다. 과학적인 학설만으로는, 뛰여 난 령도예술만으로는 인민의 마음을 움 직일수 없다. 사랑으로 개척되고 사랑 의 힘으로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력사 는 인민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천만군민 의 심장을 불러일으켜 력사의 팡픙도 가정에서 원수님을 에워싸고 울고웃으 맞받아 뚫고 빈터우에도 강국을 일뗘세 우는 무한대의 힘이라는것을 확증해주 고있다. 번영하는 조국, 약동하는 민족 은 어머니당, 인민적령도자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필생의 사명이며 의지이 다.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하늘 이였고 대원수님들은 그 하늘의 태양이 시였다. 인민을 가장 신성하고 절대적 인 존재로 뗘받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평생의 사랑을 다 합쳐 인민의 꿈을 모두 이루어놓으시려는데 경애하는 기념사진을 찍으며 격정을 터치던 체 원수님의 사랑의 거룩함이 있다.

우리 당의 사랑은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동지의 숭고하고 열렬한 사랑 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실천속에 는 언제나 병사들과 근로자들,마음속 고충을 안고사는 사람들과 원아들의 운명과 생활에 대한 념려가 가장 크게, 가장 깊이 깃들어있다.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병사들과 인민들은 모두다 자신의 한식솔이며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혁명동지, 혁명전우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천만자식들 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안겨주는 친어버이의 불같은 사랑이며 허물있고 곡절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억세게 품 어안는 한없이 진실하고 고결한 사랑이 며 한번 정을 맺은 사람은 죽어서도 영 생하는 모습으로 대오에 세워주는 변함 없는 사랑이다.

의 대국상앞에 두텁게 얼어붙은 인민의 마음을 인민중시,인민존중의 뜨거운 열로 한꺼번에 녹여준 인민의 령도자 를 알지 못하고있으며 가슴에 파고 드는 애육원 원아들을 눈물속에 껴안 고 그들을 세계일류급의 보금자리에서 박사로, 영웅으로 키울 구상을 펼친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전사한 평범 한 군인들을 위해 그들의 묘주가 되여 준 최고사령관은 신화에서조차 찾아 의 날과 달,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미증 유의 업적은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전설적인 사랑의 력사이며 그 응결체

인민의 요구, 인민의 리익, 인민의 평 가가 우리 당활동의 유일한 기준이다. 우리 혁명대오에 서식하던 현대판종파 집단에 대한 단호한 숙청은 인민을 천 시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며 인민의 피땀으로 개인의 향락을 사는 반인민적 인 세도군, 관료배들은 이 하늘아래 살 아남을 자리가 없다는 우리 당의 철의 서언이며 결단이다.

우리 당의 사랑은 인민을 위해 천만 고생을 락으로 삼는 희생적인 헌신 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과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인민군군인들과 인민 들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회수는 무려 수백회에 달한다.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동해안 전방초소를 시찰하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을 돌아보시 고 3.8국제부녀절을 축하해주신 걸음 으로 풍랑을 헤치며 최대열점지역인 섬 방어대를 찾으시였으며 새로 건조한 전 투함선들의 기동훈련을 지도하신 걸음 으로 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말그 대로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을 이어 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쏟아지 는 폭우를 그대로 맞으시며 병원건설장 도 돌아보시고 해발 1,360여m의 산 정에 놓은 삭도에까지 몸소 올라 안전 성을 검사해보시였으며 삼복의 무더위 에 온몸을 땀으로 적시시며 로동자들의 작업조건을 개선할 대책도 세워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눈물겹게 간직되여있 다. 자신께서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 년 비약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론이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어버이장군님과 영결하며 피눈물을 뿌린 우리 인민이 였으나 지나온 나날 장군님께서 계시 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어버이장군님 그대로 인민을 위해 불타는 태양이시였다. 차디찬 바다물이 어깨를 적실 때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서며 눈물을 리는 최전연용사들의 모습,일터에서, 며 떨어질줄 모르는 인민의 모습은 그이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 는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끝없는 신뢰심의 분출이다.

사랑은 기적의 불길을 일으키는 밑불 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영광의 보고 를 올릴 그 시각을 위해 억척같이 일 떠선 위성과학자들이 한겨울에 강설우 에서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는 민족의 대경사를 안아왔고 전선천리 머나먼 길을 이어 고산땅을 찾으신 원수님을 우러러 감격에 목메이던 돌격대원들이 전선지대 무릉도원, 철렁아래 사과바다 를 펼쳐놓았으며 원수님의 품에 안겨 육인들이 세계의 하늘높이 람홍색공화 국기를 련이어 휘날렸다.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기상의 근저에는 그 정치에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사이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이 흐 르고있다. 억만의 재부나 첨단무기가 있어 강국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 강국 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랑의 힘이 영원하듯이 사랑으로 일떠선 강국도 불멸하다.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야말로 력사발전의 원동력, 나라와 민족의 절대적인 힘이라는것을 심장으 로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발걸음을 따르며 우리 인민은 새삶 의 거창한 세계를 받아안았고 산악도 떠옮길 자기의 무한대한 힘을 확신하 였으며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 영원한 사랑의 품을 알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수천년을 헤아리는 인류력사는 민족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그이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인민의 힘은 주체조선의 약동하는 힘의 근본원천 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 어 모든 영광을 맞이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의지이다. 인민이 지지하며 인민이 받드는 령도, 그것은 최고의 정의이며 최강의 힘이 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이 불멸 의 진리를 아로새기며 사회주의강성국 볼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 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 게 전진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젊음으로 약동하는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힘이 시다.

경애하는 김정은통지께

전 쏘런국방상 데. 떼. 야조브원수가 보 사 전 문 을 \emptyset

로 동 이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가장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저의 생일 90돐을 축하하여 친서와 선물 그리고 가장 훌륭한 꽃바구니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당신께 충심 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특별히 파견하여주신데 대하여 저와 저의 일가친척들은 깊이 감동되였습니다.

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맺은 특별한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오늘 당신께서는 저자신뿐아니라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관계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십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신 김정은동지, 저는 당신께 다시한번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서 부디 건강하실것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 사업

에서 성과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와 가장 훌륭한 축원을 드립니다.

> 전 쏘련국방상, 쏘련원수 조 야 2014년 11월 9일

모스크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소식을 3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이란의 파르스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 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다음

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 서 연설하시면서 조선인민군의 모든 대대들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 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대회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대대 중시,대대강화사상을 구현하며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 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인 계기

군력을 강화하는데서 대대의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모든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이 대대를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 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최정예전투 대오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서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리

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일본의 지지통신, 싱가포르의 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TV《아시아소 식통로》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도교신붕》, 프랑스잡지 《르 뿌앙》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데 대하여, 인도네시아의 르몰통신은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478련합부대사이의 쌍방실동훈련 을 지도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몽골신문 《어드린 쏘닌》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국제비행장건설 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평양국제비행 장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 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소식 을 게재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 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새로 개건된 5월1일경기장에서 너자축구경기를 판람하신 소식,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을 현지지도하신 소 식,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사회주의승리에로 향도하는 불멸의 기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광 법 히 세계적판도에서 연 구 보 급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제국주의자들과 사회** 주의배신자들에게 철추를 내리고 진보적인류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 겨주며 세계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한것으로 하여 지난 20년 간 세계적판도에서 광범히 연구보

급되였다. 불후의 명저는 발표된 후 석달 남 짓한 기간에 《김정일 위력한 사회주 의의 승리에 대하여 확언》, 《광명은 동방에서부터 비쳐오고있다》, 《사회 주의는 인민들의 심장속에 살아있 다》등의 제목으로 여러 나라 210여 개의 출판보도물들에 전문 또는 요 지로 보도되였으며 그 수는 나날이

확대되였다. 로씨야 빨레야출판사, 꾸바 헤씨뜨 출판사, 메히꼬로동당출판사, 수리아 의 다르 디마스끄출판사, 이딸리아평 화와 사회주의운동, 주체사상연구 핀 란드전국위원회, 오스트리아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현대성위원 회를 비롯한 수백개 단위들에서 절세위인의 고전적로작을 단행본으 로 출판하고 신문, 잡지, 인터네트홈 페지들에 게재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에꽈도르문화협회 위원장은 발행식에서 김정일동지의 로작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에꽈도 르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이 지침 으로 삼아야 할 영원한 투쟁의 교과서, 승리의 기치로 빛을 뿌릴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나미비아 윈드후크의 수도출판사 는 단행본의 머리글에 인류가 오랜 세월 념원하여온 리상사회가 바로 조 선에 현실로 펼쳐졌다, 이것은 사회 주의가 결코 공상이 아니며 과학적 인 리상사회라는것을 증명해주고있 다, 지구상의 전체 인류가 사회주의 리상사회에서 살게 될 그날은 바야 흐로 다가오고있다, 위대한 조선의 사회주의에 영광을 드린다고 썼다.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한 불후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의 기본내용을 해설하는 글들이 출판보도물들에 광범히 편 집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 의가 좌절된 원인을 분석하시고 사 회주의의 과학성과 불패성, 영원성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고 하면서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인류사상사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 히 한 귀중한 문헌》,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백과

전서적인 로작》이라고 평하였다. 영국신문 《더 뉴 워커》 는 김정일동지께서 집필하신 론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현시기 날로 강화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에 철추를 안기는 진 리의 확언이며 조선이 자주와 사회 주의를 위한 혁명의 길을 따라 변함 없이 나갈것이라는것을 천명한 선언 이라고 전하였다.

로작의 심오한 사상에 깊이 공감 된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업적을 칭송하여 성명,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성명, 담화들은 사회주의운동에 새 로운 활력을 부어주신 김정일각하는 참으로 우리 시대 사회주의운동의 대표자, 사상리론의 대가, 사회주의 와 인류운명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면 서 사회주의가 인류가 반드시 도달 하여야 할 사회라는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과학이다,이것은 희세의 정치가이신 김정일각하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모습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김정일동지의 로작은 국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며 사람 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 과 확신을 안겨준다고 하면서 로씨 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회 이름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리였다.

나이제리아 라고스 오니케초등

학교 교장은 김정일각하께서 시대의 요구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로작

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목자체가 위대한 진리이라고 강조

김정일동지께서 확언하신바와 같 이 사회주의가 그 과학성과 진리성 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시간상문제 이다.

인류의 리상인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것 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은 신 심을 가지고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 신대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 주의에서 승리의 앞날을 내다보며 사 회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 야 한다.

토론회, 해설모임, 독보회, 강연회 등 로작연구보급활동이 세계적판도 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 한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진보적 인민들은 로작을 깊이 연구하고 실 천에 구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하였다.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좌익 정당들의 로작연구토론회에서는 로작이 발표된 1994년 11월 1일을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재건의 날, 사회 주의위업의 진군의 날로 정하고 진보 적정당들이 해마다 이날에 즈음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진행 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 할데 대한 호소문이 발표되였다.

단마르크의 쾨뻰하븐에서 진행된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OICI》가 토론회의 공식문건으 로 채택되였다.

영국신공산당 대회에서도 총비서 의 제의에 따라 로작이 대회문건으

로 배포되였다.

메히꼬로동당을 비롯하여 사회주 의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의 정당들 이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을 당내 필독문헌, 행동강령으로 규정하고 사 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해 나갈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지난 20년간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면 서 세계사회주의운동에 새로운 활력 을 부어주었다.

수많은 나라의 정당, 단체들과 각 계 인사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국제 회의 등 여러 회합들을 통하여 진보 적정당들의 단결과 현대성이 더욱 강 화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을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활동들 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메히꼬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새 사 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토론회 와 동유럽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의 당건설과 관련한 국제토론회를 비롯 한 회의들에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옹 호고수하고 전진시키는 투쟁에서 진 보적정당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해나 갈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고 실행 되여나가고있다.

네팔에서 진행된 21세기 사회주의 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20세 기 마지막년대가 사회주의력량이 재생된 투쟁의 년대로 되였다면 21세기는 조선을 중심으로 하여 사 회주의가 전진하며 승리하는 세기로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력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 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에 서명한 정당수가 70개로부터 오늘날 280 여개로 늘어난 현실은 절세위인의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 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시 대와 력사앞에 선언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완성 된 혁명학설을 지침으로 삼고 투쟁 하는 진보적인류는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 이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골 라 공 화 국 에

루 안 다

앙 골 라 공 화 국 대 통 령

쥬제 에두아르두 두스 싼뚜스각하

나는 앙골라독립 3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오랜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 면서 민족적단합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부흥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바랍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주체103(2014)년 11월 10일

평

혁명의 교과서를 안고 살도록

중구역종합식당 경림국수집 극 벌러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 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여 그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

업에 힘을 넣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당조 직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무슨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학습을 일을 하든 인민들이 먹을 보게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 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과 결부 하여 독보와 해설모임, 연구발 표모임 등을 실속있게 진행해나 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 고있다.

이와 함께 초급일군들부터가 로작의 진수를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종업원들속에 알기 쉽 게 해설해주기 위한 사업을 적

얼마전에도 이곳 당조직의

한 초급일군은 모두가 인민의 요구,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살며 일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책임적으로 해나가자는 그의 이 야기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려 주었다.

지금 이곳 종업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인민봉사활동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 쳐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다.

본사기자



주체미술의 전성기를 펼쳐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래우고있다. - 만수대 창작사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영원한

우리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를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변시킨 3년간의 투쟁에서 남김없이 과시되 위대한 장군님과 피눈물속에 영결한 때로부터 3년이 되여온다.

지난 3년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 결한 충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장군님 의 뜻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성스러운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우리 인민은 영원한 혼연일체이며 장군님은 천년 이고 만년이고 혁명의 걸출한 수령,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 라는것이 지난 3년간의 영웅적진군 이 새겨주는 철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받들어모시는것 은 우리들의 응당한 본분이고 도 리입니다. »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혼연 일체는 장구한 력사적투쟁속에서, 생 사를 판가리하는 피어린 선군혁명의 길에서 이루어진 가장 진실하고 공고 한 단결이다.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인민을 키

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세기 가 넘는 기간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 시며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오 시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 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오 는 로정에서 장군님은 선군조선의 힘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 나아가 는데 우리의 존엄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은 우리 인민을 백절 불굴의 강자들로 키운 생명수였고 장군님의 령도는 화를 복으로, 역경 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필승의 기치였으며 장군님의 인덕은 온 나라 자양분이였다. 어버이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천만군민이 장군님과 혼연일체를 이루었으며 이 위대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과 부강조국건설에서 자랑찬 승리를 아아왔다.

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시련의 시기에 뚜렷이 검증된다.세월의 흐 름속에서도 변색을 모르는 절대적인 충정, 그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끄떡 없는 철석같은 신뢰심에 기초한 단결 이 가장 공고한 단결이며 영원무궁한 혼연일체이다.

지난 3년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 에, 우리의 생활속에 함께 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다진 맹세 를 지켜 피눈물의 바다에서 산악같이 솟구쳐일어선 인민,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력사의 생눈 길을 과감하게 헤쳐온 인민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미제를 비롯한 력사 의 온갖 반동들의 끈질기고 악랄한 반공화국책동도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을 흔들어놓 을수 없었으며 우리 조국의 힘찬 진 군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 위대한 장군님과 영원한 혼연일체 를 이룬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는 장군님의 영생을 위한 사업에 티없이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바쳐가는데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수령영생위업실현은 혁명적도덕의 리의 최고정화이다. 자기 수령에 대 한 충정을 신성한 의무로,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직한 혁명가들은 수령 영생위업실현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게 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백두산대국 의 영원한 영상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

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 없이 높이 모신것은 천만군민의 열화 같은 충정의 분출이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 대양궁전》으로 명명하고 금수산 태양궁전법을 채택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도 덕의리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태양 의 성지를 민족의 만년유산으로 빛내 이는데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세출의 위인상 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불멸의 업 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태양의 성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금수산태양궁전이야말로 우리 인민 의 백옥같은 충정이 깃들어있는 수령영생의 기념비이다.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 이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는 전국각지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영생탑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3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도 울릴 그지없이 지극하고 열화같은 충정을 바쳐 위대한 장군님을 모셔가는 우리 인 민의 티없이 깨끗한 량심과 도덕의 리는 세계를 끝없이 경탄시키고 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투쟁의 무기로 틀어쥐고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바쳐가고있 다. 노래를 불러도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고 일을 해도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 으로 계시는 장군님께 충정의 보고를 군장병들, 인민들의 일편단심이 지난 올릴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혁명적

도덕의리의 체현자들이 바로 우리 군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제자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 대와 인민이다. 이런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새로운 주체 1 0 0 년대가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장이 펼쳐지 는 성스러운 년대로 빛나고있는것 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영원한 혼연일체 를 이룬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는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 어쥐고나가는데서 뚜렷이 발현되고 있다.

혁명은 수령의 뜻이고 의지이다. 수령의 유훈에는 부강조국건설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가 깃들어있고 인 민의 리상과 념원이 담겨져있다. 수령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데 조국번영이 있고 수령의 영생이

지난 3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혁명 과 건설의 강령적지침이였으며 삶과 투쟁의 교과서였다.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틀어쥐고나가는 근본 원칙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이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 로 보란듯이 내세우시려고 한생을 초불처럼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려 는것이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이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최첨단 새 공장을 세우면 또 뵈올가 라고 노래를 부르며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다.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 쟁이 끊임없이 심화되였으며 어느 부 문,어느 단위에서나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였다.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최첨단돌파전 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새로운 주체 1 0 0 년대에도 거세차 게 타올랐으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이 더욱더 활력 있게 전개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 사를 비롯하여 세계를 격동시킨 민족 사적사변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 이고 최상의 선물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철통같이 다져지고 백두산혁명강군 의 무적필승의 기상이 높이 떨쳐지고 있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만복 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 기 위한 투쟁을 더욱 맹렬하게 벌려 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판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 하여 태양의 력사는 오늘도 래일도 끝없이 흐를것이며 장군님의 한평생 의 념원은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영원한 혼연일체 를 이룬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는 모든 사업을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는 데서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수령의 풍모를 그대로 닮는것은 혁 명하는 인민의 최대의 본분이고 의무 이다. 자나깨나 수령의 사상과 의지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혁명 정신과 창조방식을 구현해나가는 투 쟁속에서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는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 의 슬하에서 혁명하는 법, 투쟁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한 장군님의 전사, 리 혁명을 이끌어오시는 전로정에서 혁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싸워 나가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 여주시였다.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 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투쟁방식, 일단 결심한 일 은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완강한 실천 력, 무엇을 하나 설계해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무슨 일이나 불 이 번쩍 나게 해나가는 무비의 담력 과 배짱,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창조정신,

창조본때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창조하 며 비약하자, 이것이 지난 3년간 우 리 군대와 인민이 높이 추켜들고온 투쟁의 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투쟁방식이 제일이라는 투철한 신념, 0.001 mm의 편차도 없이 장군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모든 사업 을 해나가려는 견결한 의지가 우리 군 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세차계 맥박 쳤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주신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자 주, 선군, 사회주의의 원칙을 꿋꿋이 고수하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으로 온갖 시련과 난판을 강행돌파하 였다. 특히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 동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천만 군민의 사상정신적풍모가 보다 높은 단계에로 승화되게 되였으며 새로운 주체 1 0 0년대가 전인민적인 애국 적진군으로 수놓아지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싸워 미제와의 대결에서 련전쾌승을 이룩 하고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사변들 을 안아왔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 월성과 위력,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 상이 높이 떨쳐졌다. 조국해방전쟁승 리기념판과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 키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같이 세 계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창 조물들이 수많이 솟아났다. 과학, 교

육, 보건, 체육분야에서도 특기할 성 과들이 이룩되였으며 도처에 사회주 의선경들이 펼쳐졌다. 조국의 부강번 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누가 알아주건말건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 는 수많은 시대의 전형, 공로자들이 배출되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생판을 구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풍모가 얼마나 고결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 3년간 위대한 장군님과 우 리 인민사이의 혼연일체가 변함없 이 이어질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은 곧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한품 에 안아 뜨거운 열과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 며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영생위업실 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정으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 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가슴마다 에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 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이 억척같이 뿌리내리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지난 3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 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주체혁명 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령도따라 백두산절세위인들과의 혼연일체의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이 며 이 땅우에 기어이 세계가 부러워하 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 석탄산이 더욱더 높아간다

마음을 소중히 여기라 애 국 의 보석 같은

얼마전 제남탄광 2갱은 높이 세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 혁명결의목표들을 훌륭히 실현 하고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 취하는 영예를 지니였다.

성과의 요인들을 따져보면 사 상혁명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 하면서도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에 특별한 힘을 넣은데 주되는 비결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 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 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 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 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 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는것은

해당 단위사업의 성과를 담보하

남덕탄광 10갱 분초급당위

원회 사업을 통해서도 현실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도 그것이 실지 은을 낼수

있게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착

언제인가 3대혁명붉은기쟁

어느 한 모임에서 분초급당비

서 차룡수동무는 종업원들을 설

비관리.기술관리의 주인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의 중요성을 다

작업이 교대로 진행되고 다른

갱들과 달리 막장조건이 어려운

갱의 실정에서 설비들의 가동률

을 높이는 문제는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근본비결의 하나였

시금 깊이 느끼게 되였다.

취를 위한 기술혁명결의목표를

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세울 때의 일이다.

기때문이였다.

H

04

0

0

횔

형

J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령 도 자

는 중요한 문제이다.

수 있다.

지적하시였다.

제남탄광 2갱 분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됩니다.》

그러면 갱분초급당위원회에 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대중 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기본열쇠 로 틀어쥐고 어떻게 진행해나갔

우선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 하였다.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세포들이 격동적인 현실의 요 구에 맞게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을 심도있게 벌려나가도록 사업 을 치밀하게 짜고드는 한편 영 구화중대당세포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당세포비서 리인철동무가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 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 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당초급일군으로서 누구보다 일욕심이 많고 사업에

대한 연구심이 강한 점을 중시

하였다. 분초급당비서 장광동무는 영 구화중대당세포사업이 사람들의 애국심을 키워주고 발양시키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하 기 위해 품을 많이 들이였다. 특 히 뒤떨어진 탄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더 욱 참신하게 벌려 커다란 실효를 거두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 해 나갔다. 그에 따라 갱안의 모든 당세 포들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교 양을 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심화시켜나가게 되였다.

의 특성과 심리에 맞게 잘해나

가기 위해 당세포비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업적을 보

여주는 위대성자료들도 수많이

갖추고 널리 활용하였으며 남모

지난날 범한 과오로 하여 위

축되여 생활하던 장동무가 붕락

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곳에

도 서슴없이 뛰여든것을 비롯하

여 중대전투원들속에서는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미풍들이

수없이 꽃펴났다.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의 실효가 눈에 띄게 나타

날 때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영

구화중대당세포의 모범을 일반

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 안받침

르는 밤길도 많이 걸었다.

분초급당일군들이 다음으로 잘한것은 누가 보건말건,알아 주건말건 묵묵히 맡은 일에 허 신하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긍정 적모범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한것이다.

채탄공 최승도동무의 아들이 제대배낭을 탄팡에 풀어놓고 굴 진공으로 일하게 되였던 때의

분초급당일군들은 언제나 보 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자신이 탄전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흘려왔을뿐아니라 아 들도 대를 이어 석탄전선을 지 켜가도록 한 최승도동무의 정신 세계를 높이 내세워주었다.년

하며 고장이 생길수 있는 요소

들을 제때에 찾아 자체의 힘으

로 해결하기도 하고 우에 제기

하여 대책하기도 하였다. 여기

에 기대,설비의 수리를 담당한

다음으로 분초급당위원회가

수리공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

는 사업도 따라세웠다.

욱 높이 발휘되였다. 그 과정에 갱에서는 높이 운 사상혁명결의목표를 성과적 으로 실현하고 기술혁명, 문화 혁명결의목표도 보란듯이 점령 하게 되였다.

대와 년대를 이어 나라의 석탄

산을 높이 쌓는데 깨끗한 량심

을 바친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선물까지 받

아안은 최승도동무의 모범을 통

해 탄부들이 받아안는 충격과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갱장

전순봉동무에 대하여 소개하는

기사가 출판보도물에 실리였을

때에도 그가 수십년간 탄광에

찍어온 헌신의 자욱자욱에 대하

여 탄부들에게 감동깊이 알려주

었다. 그 어떤 명예도 꽃다발도

바람이 없이 맡은 일을 성실하

게 해나갈 때 조국의 부강발전

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짜배기

애국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갱안의 탄부들속에서는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인민,집

단과 동지를 위하는 미풍이 더

이때만이 아니였다.

흥분은 컸다.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이들이 거둔 성 과는 다름아닌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얻은 고 귀한 결실이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여 있는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소 중히 여기고 분출시키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할 때 대중운동 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 을 이곳 분초급당위원회 사업은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정수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 학습의 날운영에도 큰 힘을 넣 어 종업원들이 기술기능수준을

지난 시기에는 주로 갱장과 기술자들이 강의를 하는것으로 그쳤다면 지금은 모든 종업원들 이 강사의 립장에서 토론과 론 쟁을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학 습에 대한 열의가 높아질수록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높

하여 몇해전까지만 해도 갱에 서는 권양기, 전차, 압축기를 비 롯한 설비들이 자주 고장나 석 탄생산에서 애를 먹었지만 오늘 은 끌끌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자라나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

관리의 주인, 기술관리의 주인 으로 되니 석탄생산에서는 전례 없던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 과 정에 갱은 3대혁명붉은기를 쟁 취하였다.

비결은 실정에 맞는 옳은 방 법론에 있었다.

본사기자

조양탄광 청년갱 분초급당위원회에서 일군이 어떤 립장에 서는가가 중

분초급당비서 리명남동무는

3대혁명붉은기쟁취 운동을 성과적으로 벌 요하다. 리자면 행정경제일군들 의 역할을 중시하여야 결론부터 서두르지 않았다.대 중이 우4 편도에 대한 확신을 한다. 행정경제일군들 이 당의 경제정책관철 가지고 달라붙도록 하자면 그에 에서 주도성과 창발성 대한 기술적담보가 필요했다. 을 얼마나 발휘하는가 그래야만 갱장의 결심이 실천에

에 따라 단위사업성과 가 좌우되기때문이다. 최근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성과를 거 두고있는 조양탄광 청년 갱 분초급당위원회 일군 들의 사업이 그것을 뚜 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였다. 《3 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서 행정경 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 야 하겠습니다.》 이미 타고앉은 막장

에서 석탄생산을 계속 늘이면서 시급히 새 탄 받을 마련해야 할 문제 가 나섰을 때였다. 이것 은 높아진 석탄생산목 표를 수행하는데서 반 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였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갱장 정성연동무는 우 4 편도에서 새 탄밭을 찾아보자는 안을

고 론의가 분분 했다. 석탄생산 량을 늘일수 있는 좋은 안이였지만 만약 력량을 집중했다가 탄이 나오지 않으면 갱의 전반적인 석 탄생산에 큰 지장을 줄수

내놓았다.

그런것으로 하여 탄광 의 일부 기술일군들과 갱 의 초급일군들도 갱장의 방안을 선뜻 지지해나서 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런 때 분초급딩

있기때문이였다.

을 만나 토론도 거듭하였다. 때 로는 자신이 직접 갱에도 들어

분초급당일군은 탄광기술일

군들과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는것과 함께 오랜 탄부들 갔다. 이 과정에 그는 우4편도 에는 많은 량의 석탄이 매장되 여있다는 확고한 기술적담보를 찾아쥐게 되였다.

구현될수 있었다.

분초급당일군은 우4 편도를 개척하여 새 탄밭을 마련하는 것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에 반영하고 행정경 제일군들이 이 사업에 신심있 게 떨쳐나서도록 적극 뗘밀어 주었다.

특히 이 사업에서 행정경제일 군들이 주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갱에서 돌격대를 뭇고 몇달동 아 새 타발을 찾아 굴진을 해나 갔지만 설계에서 예견한대로 석 탄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을 때

탄광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많은 로력과 자재를 들이밀어 석탄생산에 지 장을 준것만큼 갱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갱 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신심 을 잃고 일판을 전개하지 못하

였다. 갱장을 찾아간 분초급당일군 은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책임 을 져도 함께 지겠으니 신심있 게 앞으로 나가라고, 온 갱이 갱 장의 얼굴을 지켜보고있다고 그 를 적극 고무해주었다.

그리고는 당원들속에 들어가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며 대중 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이 앞장 에 서서 위험한 갱속으로 뛰여 들었다. 대오의 앞장에서 기발 을 들고나가는 분초급당일군의 불같은 헌신적모습은 주저앉았 던 일군들을 분발시켰다.

그리하여 청년갱에서는 끝끝 내 우4 편도를 개척하여 무진 장한 탄밭을 찾아내는데 성공 하였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행정경 제일군들이 사상혁명, 기술혁 명, 문화혁명의 기수가 되여 떨 쳐나서니 갱의 전반사업에서는 전례없던 성과가 이룩되게 되 였으며 얼마전에는 3대혁명붉 은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 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을 중시 하고 그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문제는 이렇듯 중요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 영 길



문제해결의

를 해결했는가를 보기로 하자.

우선 설비담당관리제운영을

잘하여 모두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차봉

화동무는 권양기, 굴진소대장은

압축기. 1 중대장은 5편도뽐

떨쳐나서게 한것이다.

남덕탄광 10갱 분초급당위원회에서 ▮~~~~~~ 00000000

샛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당시 일부 종업원들속에서는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

사업을 해당 설비를 담당한 기

대공이나 수리공들이 해야 할

사업으로만 여기였다. 그러다나

니 운반과정에 설비들에 고장이

생기면 수리공들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랑비하였고 그것은 석탄

이것은 갱안의 종업원 누구나 설비관리,기술관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설비가동률을 근 본적으로 높일수 없다는것을 말

분초급당일군은 종업원들이 설비관리의 주인,기술관리의 주인이라는 옳바른 관점을 가지 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한사 람같이 뛰여들게 하자면 옳은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면 분초급당위원회가 어

뗜 방법론을 틀어쥐고 이 문제

고있다.

프, 2중대장은 6편도뽐프 등 이런 식으로 설비는 물론 케블 구간, 레루구간, 갱도천반구간, 동발구간을 비롯한 갱안의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위험요소들까지

모두 장악하여 초급일군들은 물 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갱의 모든 기대, 설 비들에 주인이 정해진것이다.

이렇게 되니 종업원모두가 자 기가 맡은 기대, 설비들에 뜨거 운 마음을 쏟아붓게 되였다. 늘 자기가 맡은 기대, 설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작상태를 주시

나가고있다.

잘한것은 종업원들이 설비판 리. 기술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진데 맞게 설비점검의 날과 기술학습의 날운영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누구나 이 사업에서 주인다운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특히 주에 1차씩 진행하는 설비점검의 날을 잘 운영하는 데 큰 힘을 넣었다. 설비점검의 날에 총화와 평가도 해당 설비 를 담당한 기대공, 수리공들만 이 아니라 앞서 말한 담당성원 들도 함께 평가해주니 책임성 이 더 높아진것은 두말할것이

한계단 높이도록 하였다.

아졌다.

할수 있게 되였다.

따져가며

개천탄광 종합중대부분당조 직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 를 위한 결의목표수행을 짜고들 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부문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탄부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질화한 준비시키고있다.

부문당조직에서는 중대교양 실을 사상교양거점답게 잘 꾸려 놓고 1 700여점의 교양자료 들을 갖추어놓았으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 법으로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중대의 당원들과

을 수확하여 시안의 공장, 기

업소들과 육아원, 애육원, 탁

아소, 유치원들에 보내주고있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료리

를 먹으며 기뻐할 그들의 모습

을 눈앞에 그려보느라니 원산

버섯공장과 평성버섯공장을 찾

았을 때 자기들의 생산성과를

자랑하며 기쁨에 넘쳐있던 일

군들과 종업원들의 모습도 삼

이 하던 말이 새삼스럽게 되새

문득 몇달전 내각의 한 일군

삼히 어려왔다.

었다.

금수산태양궁전에 20여차에 걸쳐 수종이 좋은 150여그루 의 나무들과 수많은 관리도구들 을 보내주었으며 탄광의 사상교 양거점들을 꾸리는 사업에 깨끗 한 량심과 의리를 바치였다.

부문당비서 최용진, 중대장 단히 보충갱신하면서 당원들과 탄부들을 기술혁명수행에로 적 극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 중대는 2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여 종 전보다 석탄생산을 1.5배이 상 끌어올리였으며 올해 석탄생 산계획도 지난 10월 10일까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로고는

지난해 6월 보성버섯공장을

탄부들은 충정의 마음을 안고 지 탄광적으로 제일먼저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중대의 건물을 새 세기의 요 구에 맞게 일신하였으며 막장 안의 권양기실, 압축기실도 알 뜰하게 꾸리였다. 군중문화체 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 에 당원들과 탄부들은 혁명적 락관과 신심에 넘쳐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가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한조항, 한조항 착 실히 수행해나가는 나날에 중대 는 모든 면에서 탄팡의 본보기 단위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로농통신원 전 순 회

정 방 산 버 섯 공 장 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버섯을 현대적인 과 학기술을 도입하여 공업 적방법으로 생산하는것 을 적극 일반화하여야 합 LICH. »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에 의해 현대적으로 일뗘선 정방산버섯공장 일군들과 종 업원들이 버섯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원료와 자재보

장대책을 앞세우는 한편 연 구사들과의 긴밀한 런계밑에 여러 종류의 버섯품종을 받 아들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 서 정상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와 함께 버섯생산의 기 본담당자들인 종업원들의 기 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 과학기술학습을 정상적 으로 진행하고 기능공들의 기술전습과 경험토론회도 자 주 조직하여 모든 종업원들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모 든 설비들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그리고 종균접종 에서의 무균화를 철저히 보 장하는것과 함께 균배양과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 하며 온습도보장을 책임적으

로 하도록 하고있다. 종균접종작업반의 종업원 들이 맡은 일에 대한 높은 책 임감을 안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서은 하동무를 비롯한 로동자, 기 술자들은 종균접종에서 멸균 을 철저히 과학기술적요구대 로 하여 1차 종균생산과 접

종을 잘해나가고있다. 버섯생산의 첫 공정을 맡 은 기질성형작업반의 로동 자, 기술자들은 서로 돕고 이 끌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분쇄기와 원료혼합기를 비롯한 설비들

준에서 정상화 생산정상화의 돌파구를 열어

재배 1 , 2 작업반의 로동 자, 기술자들도 온습도보장과 균배양 및 버섯재배에서 나 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 버섯생산을 늘이는데 해 주 버 섯

해주버섯공장에서 맛좋고 영양가높은 버섯생산을 정상 화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

에 일뗘선 해주버섯공장은

수만m²의 부지면적에 10여 동의 생산건물과 부속건물을 가진 수백t능력의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이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

운 사랑이 하루빨리 인민들 에게 가닿게 할 일념안고 버 섯생산을 늘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흰굔봉버섯생산은 처음 해

보는 일이여서 난관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과 종 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 기여하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공장에서는 도의 여러 단위 에 많은 버섯을 보내주는 성 과를 이룩하였다.

특파기자 김 천 일 장 에 서 구단위와의 긴밀한 런계밑에 원료혼합과 멸균, 접종 등 모 든 작업을 과학기술적요구대 로 해나가고있다.

작업반장 백명일동무를 비롯한 재배작업반원들은 재배장의 온도와 습도조건 을 잘 지어주면서 버섯생산 에 정성을 쏟아붓고있다. 애 쓴 보람이 있어 버섯재배장 들마다에는 보기에도 먹음 직스러운 흰곤봉버섯들이 자라고있다.

작업반장 윤현구동무와 작 업반원들도 느타리버섯생산 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해 버섯생 산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백과 물결치는 가을의 산과 들

을 찾았던 나는 버섯풍년이라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

같애요. 우리 공장 로동자들이 정말 좋아할겁니다.》

로 설레이게 해주었다.

는 흐뭇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때 그는 당의 크나큰 은정

알고보니 공장에서는 지난 4월에 첫 수확을 한 때로부 터 지금까지 80여t의 버섯

수 필 🔛

속에 각 도마다에 일떠선 현대 적인 버섯공장들에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확신에 넘쳐 이렇게 말했었다.

《이제 버섯풍년소식이 조국 땅 방방곡곡에서 시간이 다르 게 전해질겁니다. 기자동무가 발이 닳도록 뛰여다녀도 미처 다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말입

버섯풍년! 벅찬 현실이 너무도 빠른 시 일에 눈앞에 펼쳐진것을 보느 라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그 얼마이던가.

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귀 전에 쟁쟁히 메아리쳐온다. 어 느 한 군부대를 시찰하시면서 버섯과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료리를 군인들에게 먹이고있는 것을 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

시던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난

다고, 이 공장과 같이 공업적인

방법으로 버섯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들을 도처에

일뗘세워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버섯연구소를 일떠세워주시여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

들수 있는 튼튼한 과학연구 및

보급기지를 마련해주신분도,

표준설계를 보아주시고 현대적

인 설비들을 갖추는데서 나서

경애하는 원수님,

 \bigcirc ><<

마다에 빠른 기간내에 훌륭히 일떠설수 있게 해주신분도 바 로 우리의 원수님이시였다.

돌이켜보면 오랜 버섯재배력 사를 자랑하는 나라들도 있고 버섯재배기술을 뽐내는 나라들 도 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 그 어느 시대에 버섯재배를 인민 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중요 한 정책적문제로 내세우고 온 나라에 버섯재배바람이 일어나 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인

령도자가 있었던가. 균실체로 영양을 흡 수하는 버섯에는 뿌리 가 없다. 그러나 내 조 국에 펼쳐진 버섯바다 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는 절세위인들의 열화같은 사랑의

력사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하기에 산과 들의 풍년노래 는 가을에만 울려도 버섯풍년 자랑은 계절이 따로 없이 공장 에서도 농촌에서도 아니 온 나 라 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울려

나오는것 아니라. 사계절 펼쳐지는 버섯바다, 버섯풍년의 새 풍치는 흥하는 로동당시대를 노래하는것만 같 아 나의 가슴은 환희로 부풀어

올랐다. 본사기자 장은 영

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여 그리고 버섯재배를 맡 재배장을 平月香卫

섯재배장을 꾸려놓는 일은 헐

직장의 종업원들은 하루일이 을 개선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 고 버섯을 대대적으로 기르기

은 로동자들이 버섯기르

생산하니 실리도 컸다. 이 얼마 나 좋은 일인가.

지금 이곳 버섯재배장에서 키 돋움하며 자라는 맛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들은 종업원모두의 마 음을 흐뭇하게 해주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청 일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흔히 풍년이라고 하면 오곡 을 먼저 그려본다. 하지만 얼마전 남포버섯공장

는 또 하나의 새로운 말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 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포버섯공장마당에 여러대의 랭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들어서 자 이곳 종업원들이 반 겨맞아주었다. 잠시후 마당에 겨졌다.

《이젠 우리 원아들도 흰굔 봉버섯찬만 찾는답니다.》 《팔뚝만 한것도 있어요. 버 섯이 전번보다 더 크고 실한것

하나같이 실한 흰굔봉버섯들 이 듬뿍듬뿍 담긴 버섯상자들 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나의 가슴도 기쁨으

2.8 직동청년탄광

공무직장에서 자체의 힘

기르기를 잘해나가고있다. 톱밥을 비롯한 나무부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버섯을 생산할 수 있게 꾸려진 이곳 버섯재배 장에는 발효실, 접종실, 배양 실, 재배실이 그쯘하게 갖추어 져있다. 직장에서는 버섯생산 에 필요한 종균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고있다. 사실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자 체 의 으로 재배장을 꾸려놓고 버섯 하면서 직장자체의 힘으로 버

치 않았다. 하지만 당조직의 지도밑에 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의 식생활

로 하였다.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할 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직장장 리승철동무는 짬시

간을 리용하여 버섯재배장 건설에로 종업원들을 불러 일으켰다.

끝난 저녁무렵이면 저저마다 떨쳐나 힘찬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수백m²의 버섯재배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직장장 은 버섯재배기술을 터득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버섯재배에

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탄광에서 나오는 톱밥과 같은 나무부산물을 리용하여 버섯을

장 八

하늘에 가득차 흐르던 별들이 여기 내려앉았는가 꿈같은 황홀경의 이밤 경사로운 새집들이 이밤 은정과학지구에 전설처럼 솟아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밤

예가 아니냐 꿈에 보던 별나라 꿈에 그린 별세상 바로 우리 과학자들이 아니냐 복받은 그 주인들이

잠들수 없구나 격정의 샘이 터져 눈물의 샘이 터져 끝없이 일렁이는 이 마음

밤은 밤이 아니런듯 그 끝에서 끝까지 밝다, 눈부시다 집집의 창문들 가로등 줄지은 거리 멋쟁이로 희한한 공원도 위성원도…

간절한 이 마음 삼가 우러르노라 위대한 대원수님들 동상앞에서 축복의 기념사진 찍어주신 자애로운 원수님을 우러르노라

아, 못 잊을 그날 낮이나 밤이나 태양의 축복속에 살고싶은

우리 소원 이루어진 이 땅에 만복을 다 주시려 원수님은 오시였다

원수님은 웃으시고 우리들은 울고… 격정에 울며 만세부르며 백발의 로학자도 어린애가 되였던 그 눈물 아직도 이 가슴에 뜨거웁구나

이 가슴 젖어라 불이 잘 드는가 손수 아래목을 짚어보시던 수령님처럼 물은 잘 나오는가

수도꼭지를 틀어보시던 장군님처럼 집안의 곳곳을 다 돌아보신 원수님 우리 누릴 천만복 안으시고

이렇게 오시려 정월부터 오늘까지 그리도 뜨거운 심혈을 기울이신분

그 어디를 눈여겨보고 그 무엇을 안아보아도 원수님의 봄빛같은 그 미소 가득찬 우리 집 우리 거리

말해보라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여 10월의 대지우에 눈부신 너의 모습 천지개벽한 너의 모습 그 창조의 시작은 어디고 끝은 오늘은 너와 나 말하여보자

2014년의 황홀한 꿈이 집집의 창가에 아롱지던 정초의 어느날 밤

과학지구 주택들에 하나, 둘… 탁상등도 꺼지는데

오직 한분 우리 원수님께서만은 과학자들이 새살림을 펼 생활의 보금자리를 두고 잠 못 들고계셨으니

깊어가는 그이의 사색 고요한 밤이면 수령님 생각 장군님 생각 더더욱 뜨거워지는 그이의 마음

장장 수십년세월 품안아 키워오신 과학자들을 곁에 두고싶으시여 산좋고 물맑은 명당자리 품들여 골라 과학원의 터전을 잡아주신 수령님

중중첩첩 시련이 겹쌓이던 교난의 그 나날 과학지구를 은정구역으로 평양의 품에 더 가까이 안아주신 장군님

그 뜨거운 회억이 밀물처럼 차오르던 그밤 정월의 강추위는 산천초목을 얼구고 있었어도 우리 원수님의 가슴속 그리움은

만조의 바다를 이루었어라 혁명의 머나먼 길

수령님 불바다 만리를 헤치시던 나 날에도 장군님 고난의 행군,강행군의

나날에도 과학자들을 애지중지 보살피시며 주체과학의 만년초석 만년기둥을 더 억세게 더 높이 쌓으시였거니

누가 알았으랴 그 이른아침 그이께서 오실줄이야 수령님 오시고 또 오신 길로 장군님 오시고 또 오신 길로 우리 원수님 오실줄이야

온밤 쌓이고쌓인 피로 다 잊으신 그이의 음성 희열에 넘치였다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줍시다 은정과학지구 과학자살림집을 래년이 아니라 10월명절까지 당에서 맡아 건설해주겠습니다

유난히 따사로운 아침해살이 과학지구를 감싸안았다 하늘가 어데선가 금시, 환희로운 봄우뢰도 터질듯싶었다

이해의 첫 기슭에서 대원수님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그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이여

어찌 다 노래할수 있으랴

당의 이름으로 주신 약속 그리도 소중해 그이 그렇게 지새우신 밤 얼마인지

그이 그렇게 맞으신 새벽 얼마인지 우리 다 알지 못하거니

弖

새 세기 조선속도를 탄생시키며 벅차게 흐르고흐른 건설전투의 날과 달 불같은 그이의 마음 그 헌신에 뗘 실리며

기적같이 솟구쳐오른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이구나

집이여 거리여 원수님의 리상이 비껴 한없이 아름다운 우리 집 우리 거리여 너는 인민이 간직한 문명의 꿈 부흥의 열망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와 더불어

이 땅에 수풀처럼 일떠서는

기쁨우에 기쁨이 쌓이고 행복우에 행복이 쌓인 이밤 뜨거운 생각 끝없이 이으며 시간은 어이 이리 빠르게 흐르는가

과학중시 미래중시의 찬란한 화폭

어느덧 시계의 초침은 자정넘어 달음치건만 잠들지 못해 차마 잠들수 없어 우리 원수님 우러러 가슴속 물결치는 감사의 정을 안고 그이앞에 그이앞에 이 마음 세우노라

안고 가리 안고 가리 새집들이 이밤의 격정을 내 한생 다할 때까지 안고 가리

아, 우리 원수님 사랑의 약속지켜 펼쳐주신 행복의 무아경속에 잠 못 드는 밤이여 잠들수 없는 밤이여

9

이밤이 지새고 새날이 밝으면 우리 사는 복받은 이 거리에 따사로운 해살이 쏟아져내리리 노을물든 하늘이 다 비껴들리

이 가슴 뭉클 다시 젖어드누나 집열쇠를 받던 아침의 감격이 나에게 거수경례를 붙이던 장령 열쇠를 소중히 받쳐든 병사… 아, 나는 어찌하여 그앞에서 선뜻 새집의 문을 열지 못했던가

내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사랑 헤아릴수 없거니 나의 어머니는 목메여 이야기하누나 온 가족이 모여앉아 웃음꽃피울 넓은

천연색텔레비죤이 틀스레 놓아진 그 사연 당반식책꽂이가 벽에 걸린 그 사연

안해도 눈물속에 이야기하누나

대표단은 이밖에 조국해방전

쟁승리기념관과 김정숙평양방

직공장, 릉라곱등어판 등을 참

관하였다.

침대우의 포근한 꽃이불이며 갖가지로 그쯘한 집기류를 어루만 지며

과학자안해들의 심정까지 헤아려 주신 다심한 원수님의 그 사랑을

두고두고 자랑하리라 아들딸들도 복받은 우리 가정

원수님의 크나큰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싶어라 세상을 향해

과학자들을 기다릴 휴양소에 대하여 거기서 또 보여주고싶어라 인민의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를

원수님 친히 그 터전을 잡아주신 자연경개 아름다운 명승지 차길로 배길로 그 몇번이나 다녀 가시며

지극한 정성을 다 기울여주신 연풍과학자휴양소

눈앞에 보여오누나 숲과 물이 어울려 아름다운 연풍호기슭의 휴양각, 휴식터… ___ 울창한 숲속에 온갖 산새들 청아하게 우짖고

귀기울이면 자연의 신기한 음악 눈길 들면 조형미의 극치로 조화

망망한 호수가엔 물새들 날이예는 곳

이룬 살아 약동하는 결작품이런가 무색하리라 부유하다는 나라 억만장자들의 별장도 무색하리라

벌써 삼삼히 어려오누나 우리 과학자들 한껏 즐기는 모양 아마도 이 《명화》속에서 생을 즐기면

동화속의 동심에 잠겨 백발인들 못 씻으랴 선남선녀 그 꿈인들 이루지 못하랴

그 무엇도 부럼없는 부귀영화 누리며 사회주의만세소리 울려퍼지리

휴식이 권리가 되고 의무로 된 우리 제도찬가가 메아리치리

우리 당이 고맙고 고마와 하염없이 눈물이 앞을 가리누나 우리 그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이런 특전특혜 받고 산단 말인가

이 마음을 다시금 세차게 두드린다 바람소리 바람소리… 우리 과학원을 찾아오시여 사랑의 약속을 남기셨던 그날 원수님은 평양이 아니라 연풍호로

가다가는 세우시고 내려서시여선 살펴보시고 -이쪽으로 갑시다!

몸소 지형도를 펼쳐드신채

몸소 선두에서 달리시며 길 아닌 길 찾아서 연풍호로 가신 길 사랑으로 열어가신 사랑의 지름 길이여 우릴 위해 그이 헤쳐가신 문명의

지름길이여 산골길을 달려온 승용차에도 옷자락에도 신발에도 황토먼지 가득 덮이였건만 원수님 마음

-여기요! 바로 이 자리에 세상에 다시 없을 과학자들의 휴양소를 지어줍시다!

어이하여 그리도 기쁘시였던가

아, 그 누구 아는이 있었던가 호화주택, 호화거리에 호화별장까지 부귀영화 통채로 다 안겨주고싶으신 그이의 마음을…

아, 한없는 원수님 사랑이여 내 이 땅에서 그 몇번 생을 되풀이해 살아야 그 사랑 다 알수 있을것인가

기쁨과 감격이 엇바뀌며 흐르는 이밖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며 굽이치는 이런 새집들이밤을 원수님은 또 어디에 마련하실것 인가

조선속도로 세월을 주름잡는 우리 시대의 오늘과 래일에 이 나라 방방곡곡 끝에서 끝까지 오늘의 이 경사는 펼쳐지고 펼쳐

그때문에 삶을 불태워 헌신하시는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좌우명으로, 리념으로 세운 어머니

조선로동당 아, 이 나라의 천만집 천만가정은 우리 당중앙의 추녀아래 있어라

3

그 누가 불렀느냐 그 무엇이 이끌었느냐 나도 몰래 나섰구나 불빛 찬란한 거리에

꿈이 생시로 되였건만 꿈속을 거닐듯 나는 거닌다 이밤이 지새도록 다 지새도록 몇번이고 몇번이고 걷고싶은 이 길

보름달같은 원형창문이 아빠트의 현판무마다 활짝 웃고 그아래 꽃받같은 터밭들은

저 공원의 《곱등어》며 《애기곰》들은 우리 거리에 함께 사는 자랑을

니였다.

의 파비닐이면 수지통,소랭이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군안

의 일용품공장에서도 많은 자

재를 거저 얻는것으로 된다. 또

다른 유휴자재들도 군안의 인

민생활향상을 위해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고 하니 따져보면

리득도 이만저만한 리득이 아

일군들부터 앞장에 서서 집중

수매에 참가하니 군안의 주민들

이 너도나도 이 사업에 적극적

으로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결과

군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정상

화실현에 필요한 자재가 많이

군안의 주민들에게서 올해에

수매받은 파지만 가지고 군종이

공장에서 기대를 만부하로 돌려

알아보며 마음쓰는 그들의 뜨

거운 진정에 림영옥동무는 끝

내 참고참았던 울음을 터치고

자기를 키워 내세워준 조국을

위해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하였

을뿐인데 이렇듯 한 처녀의 신

상에 들이닥친 일을 두고 가슴

아파하며 진정을 바치는 사람들

확보되게 되였다.

야말았다.

사람들…

성과는 그뿐이 아니였다.

푸르싱싱한 가을남새 가득히 안았구나

밤

한 동

뽐내는듯

설레는데

그 나무아래선

젊은 연구사 쌍쌍이

꿈을 이룬 그끝에서

나는 걷고 또 걷는다

거리에는 끝이 있어도

넓지 않다 멀지 않다

꿈이 꿈으로만 남는다면

그 어찌 아름답다 하랴

세상을 둘러보라

그 세계에선

안는다

빼앗긴

그 누구든

인지…

행복하여라

부럼없어라

있으랴

울리여온다

소리

으로 된다. 그리고 1t 백수십kg 도 몇달동안은 자재부족을 느끼

원수님의 발걸음소리

쿵- 쿵- 심장에 울려온다

그 거룩한 자욱자욱

유희기구마다 오롱조롱

갓 뿌리내린 가로수들도

장난꾸러기 미래의 과학자들

과학자주택지구의 새 전설을

래일의 성공을 약속하누나

꿈이 다시 시작되는 거리여

너는 그대로 원수님 펼쳐주신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모습이구나

끝이 없는 원수님의 사랑의 세계여

광활한 이 세상 무한한 저 우주가

우리의 꿈은 세계를 딛고 우주를

류랑하는 지성의 두뇌들은 얼마며

꿈을 빼앗기고 삶의 권리마저

불우한 과학자들은 또 얼마나 많더냐

우리 사는 이 거리에 와본다면

이 자부심이 어디서 솟구치는것인지

이 신념은 파연 무엇으로 억센것

톡톡히 알게 되리라

조선과학자들의 자존심이

과연 무엇으로 도도한가를

세상에 대고 말하고싶구나

조선과학자들에게는 조국의 품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고

우리의 집은 사회주의조국

영원한 영원한 원수님의 품!

한생에 귀중한것 많고많아도

수령의 뜻에 살고 정과 열에 사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으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꿈이 어디

거창한 시대의 꿈이 태여나는 소리

꿈을 꾸라 한껏 꿈을 꾸라 조국이여

마음껏 설계하고 힘차게 내닫자 조

지 않을것이라고 한다. 현재 군

종이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들

은 군안의 학생들의 수요를 원

유휴자재들을 찾아내여 인민

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

는 바로 이것이 초산군에서 집

중수매를 통해 얻고있는 첫번째

유휴자재수집함을 통한 수매

사업을 장려하던 나날에 군에

서는 지난 시기에는 볼수 없었

던 긍정적소행들이 많이 발휘

월에 1차씩 군일군들의 집중

수매정형을 총화하는 사업이 심

화됨에 따라 학교와 일터에서는

물론이고 거리와 마을을 오가던

길에 파철, 병 등이 보이면 그것

을 손에 들고 집으로 가는 사람

만히 충족시켜주고있다.

리득이다.

되였다.

오늘 밤 꿈엔 달나라에도 다녀오리라

첫 년륜에 새기며 기쁨에 겨워

새힘은 백배해 하늘가에 뻗친다 열정은 넘치여 비약의 열풍이 일고 지혜는 샘솟아 최첨단을 돌파하리

약속하노라 조국이여 존엄높은 과학자의 이름으로 그대의 전야와 과원에 주렁질

만복의 열매를 그대의 공장과 막장에 우렁찰 전진의 동음을

인민을 문명의 금방석우에 호강시킬 새 발명과 최첨단프로그람들의 줄기찬 폭포를

그리하여 뗫뗫하리라 원수님의 사랑에 목메이던 새집들이 아침

나에게 거수경례하던 그 장령앞에 내손에 집열쇠를 정히 들려주던 한줄배기병사앞에 건설의 나날

비옷을 벗어 층막을 덮던 지휘판과 결사관철의 구호 웨치며 침목을 메여나른 철길건설자들앞에

뗫뗫하리라 어린 가로수들에 엄마 되여준 처녀병사들과 구슬땀 바친 돌격대원들 앞다투며 달려와 노래노래 불러주던

붉은넥타이들과 유치원꼬마들앞에도 아, 격정에 잠 못 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밤이여 맹세로 뜨거운 은정과학지구의 밤이여

끝없이 걸어가노라 세기를 이끄시는 원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온 나라에 뻗어갈 리상의 거리와 마을들을 지나 또 지나 찬란한 강성국가의 래일을 나는 걷고있노라

얼마나 휘황찬란할것인가 원수님 불러오시는 이 땅의 래일은 그 위대한 심장의 박동에 호흡을 맞추며

그 거창한 보폭에 걸음을 맞추며 세계를 굽어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날은

믿으시라 조국이여 우리 과학자들을 믿으시라 강성국가건설의 은빛궤도우엔 폭풍쳐 달리는 기관차가 되리라 비약하며 솟구치는 내 조국엔

쉬임없이 퍼덕이는 나래가 되리라 태양의 축복받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여

태양의 꿈을 안은 아, 그 꿈, 그 힘을 지니고

위성처럼 빛나는 이 과학지구에 내가 산다 우리가 산다!

CH XF.

【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 통신】최일경 재일본조선청년동 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 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 대 한 수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 원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 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 보았다.

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활동력 사와 절세의 위인상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 를 충정으로 받들어 사회주의조 국과 운명을 함께 하며 총련의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이바지해나가겠다.



관 의 신 선 천 군 학 생 소 년 회 관 에 서

선천군학생소년회관의 일군 들과 교직원들이 회관을 새 세 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킬 높 은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당조직의 지도밑에 회판에서 는 과외교육교양거점들과 과외 생활기지들을 새 세기의 높이에 서 잘 꾸려주어 학생들이 세상 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고 생 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모든 교직원들에게 깊이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일군들부터 잡도리를 든든히 하고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합 **쳐가면서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앞채를 메고 대중을 이끌어나가

고있다. 회관에서는 건물의 내외부미 장과 외장재칠하기,지붕보수 깔기와 잔디밭조성, 교편물, 실 험실습기재들을 원만히 갖추

인식시켜 그들이 회판의 면모를 기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여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학생소년들의 대중활동 을 위한 2층으로 된 건물을 새 로 일떠세우고 그 운영을 위한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해나 가고있다.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헌신적 인 노력으로 회판의 면모가 몰 라보게 변모되고 학생들의 과외 와 건구도색, 교양마당블로크 소조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 들이 절약투쟁을 벌리는것은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 없는 사랑의 표현이며 사회와 집단 그리고 자기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

지난 2월말과 3월초 초산군 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군적인 유휴자재수집함전시회가 진행 되였다.

전시회가 끝난 후 크기와 모 양새가 엇비슷한 수백개의 유휴 자재수집함들은 군안의 일군들 의 집집마다에 놓여졌다. 군에 서는 군의 일군들이 파비닐, 파 철,병 등을 유휴자재수집함에 보관했다가 매주 일요일마다 집 중수매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드는 한편 월에 1차씩 그 정형 을 총화하였다.

우리와 만난 군의 일군은 군 의 농업생산과 지방공업발전 그 종이공장에 월계획수행에 필요 리고 발전소건설 등과 관련하여

대 한 령 도 자 리잡고있는 림영옥동무의 집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찾았다. 지적하시였다. 그때부터 이어진 동지적의리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심이 넘쳐나는 그들의 발걸음 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생활을 은 오늘까지 드림없이 이어지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고있다. 몇해전 가을 어느날이였다. 언제인가 어느 한 료양소에서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사무실 치료를 받던 림영옥동무는 뜻밖 로 돌아온 남포시 대안구역검찰 에 자기를 찾아온 대안구역검찰 소 소장 안은수 : ****

수 없었다.

마음 동무의 마음은 어느 한 건설 ≒------ ◇

료양소에서 불편없이 치료에

전심할수 있도록 세심히 마음기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해결

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군에

서 유휴자재수집함을 통한 수매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근

기있게 내민 결과 세가지 리득

을 보게 되였다고 자랑삼아 이

그러면 그 리득이 무엇인가를

군수매상점을 찾은 우리가 지

난 3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군일군들의 집집마다에서 수매

받은 유휴자재들을 품종별로 계

산해보니 파지는 700여kg,

파비닐은 1 t 백수십kg, 병은

파지 700여kg으로는 소학

교용학습장을 수천권이나 생산

할수 있는데 이만한 량이면 군

한 많은 자재를 해결해주는것

1천 수백개 등에 달하였다.

야기하였다.

보기로 하자.

장에 지원물자를 안고 찾아왔던 소 일군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한 특류영예군인의 모습이 기슭 을 향해 물결치는 파도마냥 자 꾸만 눈앞에 안겨들었던것이다.

그의 이름은 림영옥,소중한 청춘을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바 치고도 변함없는 복무의 길을 이 어가는 처녀의 모습은 얼마나 아 름다운것인가.

그로부터 며칠후 구역검찰소

무거웠다.

울여준 그들의 뜨거운 바래움속 에 집을 떠나온것이 불과 며칠 전이였던것이다.

마음을 놓지 못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먼길을 한달음에 달 일군들은 여러가지 보약들을 려와 치료는 어떻게 하고있는 이 맞받아나갈것입니다.》 로농통신원 π 준 건 π 안고 대정동 π 5 2 인민반에 π 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 일일이

⋯⋯ 은 얼마나 많은 **수고백** 것인가.시와 구역의 일군 ◇ 들, 친근한 마 을사람들과 정다운 이웃들,이 름조차 알지 못할 생면부지의

> 하기에 영예군인 림영옥동무 는 자기의 마음속진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저의 앞길에 또다시 위험한 멀리 자식을 홀로 내보내고 정황이 조성된다면 뜨거운 사랑 과 정이 넘쳐흐르는 고마운 어 머니조국을 위해 순간도 주저없

본사기자 리건일



들이 차츰 늘어났고 짧은 기간에 온 군에 일반화되여 거리와 마을 은 나날이 환해졌다. 뿐만아니라 하나의 유휴자재라도 더 수집하 려는 애국의 마음, 아름다운 기 풍이 거리와 마을, 일터마다에 차넘치게 되였다. 이것이 집중수 매과정에 얻게 된 두번째,세번 째 리득이였다.

우리와 동행한 한 일군은 유 휴자재수집함을 통한 집중수매 가 활기있게 진행되면서 집에서 는 물론이고 일터에 나가서도 자재, 원료를 극력 아껴쓰기 위 해 노력하는 군의 일군들이 많 아졌다고 하면서 실례를 들어가 며 이야기해주었다.

유휴자재수집을 통해 많은 리 득을 얻고있다는 초산군 일군들 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전 국의 시, 군들에서 이들처럼 유 휴자재수집사업을 알심있게 짜 고든다면 나라에 얼마나 큰 리 익을 주게 될것인가에 대해 다 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방경 찬

라의 의 긴장한 인장적열 전 정 력을 김 불다황 제 를 세 바 ^부를 쳐서 풀 간 ¹ 기 다 - 과학연구사업에 - 기자 리 진 명 교

학 찍 음

《세월》호대참사를 빚어낸 반인권적범죄의 진상은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있은 때로부터 200일이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시신들은 침몰된 배와 함께 차디찬 바다밑에 내버려져있으며 《세월》 호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괴뢰패당에 대한 유가족들의 원한 은 구천에 사무치고 각계층의 분노

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있다. 《세월》 호참사는 우발적인 사고

가 아니라 괴뢰패당에 의해 감행된 위해 이 상보를 발표한다.

세계를 경악시킨 대학살만행

력사에는 배침몰사고에 의한 참변 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아낸 대참사는 일찌기 없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침몰당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려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하여 476명의 승객들이 타 고있었다.

그중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은 172명이고 나머지 304명은 침몰된 배와 함께 바다밑에 수장되였다.

어떻게 되여 이런 끔찍한 참사가 빚어지게 되였는가. 《세월》 호가 침몰된 곳은 바다기

슭에서 눈으로 빤히 보이는 3km 떨 어진 수역이였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목격자들의 증

언에 따르면 배에서 《쾅》하는 소 리가 나고 그로부터 한시간이 지나 서 배가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완전 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6시간이라는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배에는 구명조끼와 구명뽀 트도 어느정도 갖추어져있었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수백명의 생명을 내버려둔 채 저들만 살겠다고 배에서 먼저 내

배가 침몰하면 선원들은 승객들부 터 구원하고 맨 마지막에 탈출하든 가 아니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 는것이 법도이고 상례이다.

그런데 《세월》 호의 선장과 선원 들은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방송 으로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 라.》.《이동하지 말라.》고 지시

남조선에서 《세월》 호대참사가 고의적인 대학살이고 특대형반인권

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오 히려 《세월》 호에만 계속 발목이 묶여있을수 없다느니,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리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느니 뭐니 하며 대참사의 진상을 어물쩍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세월》 호대참 사를 빚어낸 괴뢰패당의 반인륜적, 반인권적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하고는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

생죽음을 당했다.

았다. 하지만 《세월》 호침몰사건과 같

그리고 승객들에게 발각될가봐 이 세상사람들의 커다란 경악을 자 선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도적고 양이처럼 몰래 배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되여 얼마든지 살수 있었 던 수백명의 승객들이 마지막탈출기

> 괴뢰당국의 구조실태는 또 어뗘하 였는가.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 여 구조활동을 벌려야 하는것이 바 로 괴뢰해양경찰이다.

회마저 잃고 배에 갇힌채 고스란히

하지만 당시 사고현장에 먼저 나 타난 목포해양경찰서소속 경비정 123호는 승객들을 구원할 대신 배 를 버리고 탈출해나온 선장과 선원 들만 처싣고 사라졌다.

그런가하면 사고발생직후 전라남 도 119구조대 등에 소속되여있는 직 승기들이 현장에 날아왔지만 《해양

경찰의 소판》이라고 하면서 가로막 음으로써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시 각에 아무런 구조활동도 할수 없게 만들었다.

국

또한 사전에 저들과 뒤돈을 대고 계약한 민간구조업체 《언딘》소속 인원들만 배에 접근시키고 민간인잠 수부들이 선체에 진입하여 승객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것마저 못하게 하

그리고는 하루종일 구조흉내나 내 고 조명탄만 쏘아대면서 시간을 보

구조에 동원된 괴뢰군부놈들 역시 물속이 어둡고 물살이 빠르다느니 뭐니 하면서 고의적으로 구조를 태공하였다.

이렇게 되여 침몰후 생존자들을 구출할수 있는 기회를 다 잃게 되

그후 시신들을 건져내는데만도 몇달이나 걸리였으며 아직도 일부 시신은 찾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

대양한복판도 아닌 륙지가까이의 수역에서 37m깊이에 침몰한 배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여 수백명이 졸지에 수장되는 대참사를 빚어낸 21세기의 비극은 바로 이렇게 되여 일어난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세상, 태공과 무책임, 안일해이와 불법무법,고의 등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는 참혹한 인권폐허지대가 바로 오늘의

죽어서도 우롱당하는 인권

304명의 승객들이 배와 함께 한 꺼번에 바다에 수장된 끔찍한 참변 은 삽시에 온 남조선땅을 초상집으 로 만들었다.

침몰수역이 바라보이는 전라남도 지도의 팻목항은 생때같은 자식<mark>들을</mark> 졸지에 잃어버린 유가족들의 가슴터 지는 통곡소리로 차고넘쳤다.

남조선 각지의 곳곳에 수백개의 분향소들이 생겨나고 추모행렬이 끊 길줄 몰랐다.

당시 악몽의 침몰현장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조차 죄의식속에 살아야 했던 비애의

바로 이러한 때 괴뢰패당은 희생 자들을 우롱, 모독하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망동들을 거리낌없이 저질러 만사람을 경악케 하였다.

피해자가족들의 눈물과 곡성이 하늘땅에 차넘치고있을 때 실종자 명단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 고 유가족들이 통곡하는 한복판에서 제배를 채우려고 태평스럽게 음식을 먹어대는가 하면 식당에 몰려가 술판, 먹자판을 펼쳐놓고 희희락락거 리면서 《〈세월〉호자작시》까지 읊어대는 추태들이 벌어졌다.

연 당시 《KBS》 방송사 보도국장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세월》호

사고는 한꺼번에 300여명이 죽어 많아보이지만 년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리 많은것도 아니다. 》, 《꼭 불행인것만은 아니 며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것》이라 는 잡소리를 줴치다 못해 나중에는 《〈세월〉호문제에 진저리가 난 다.》,《생존가능성이 없으니 이젠 그만하라.》,《다 죽었을게 뻔한데 보험금이나 타갈것이지.》 등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악담으로

그런가하면 괴뢰검찰과 경찰은 DNA확인이니 뭐니 하면서 시신을 유가족들에게 제때에 넘겨주지 않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 였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심히 모독하

현 집권자는 초상집분위기에는 아랑굣없이 미국상전을 끌어들여 그 앞에서 화사한 옷을 차려입고 꼬리 치며 아양을 떨었는가 하면 가짜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광대극 을 연출하여 각계층의 커다란 격분 을 자아냈다.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세 월》호대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 하자면 야당과 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겨야 한다는 각계층의 요구를 끝끝내 거절하였으며 《국 회》를 찾아와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마구 내쫓았다.

뿐만아니라 《세월》호침몰사고 를 무작정 《북의 소행》이라고 몰 아대면서 《단호한 보복》이니 뭐니 하고 악담질을 해댔는가 하면 북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하면서 《북풍설》을 조작하기에 급급하

나중에는 우익보수단체들과 작당 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 하는 유가족들에 대해 《선동군》, 《시체장사군》 등으로 심히 모독하 고 지어 단식투쟁을 벌리는 유가족 들앞에서 음식냄새를 피우고 먹자판 을 벌리면서 괴롭히는것도 모자라 《제대로 단식했으면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왜 살아있는가.》, 《보상금 을 타먹기 위한 연극이다. 》고 조롱 하였다.

극우보수단체패거리들은 괴뢰 였다.

당국의 비인간적이며 무책임한 처사 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북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 《제2의 광주폭동》, 《빨갱이는 죽어도 된 다. 》고 참을수 없이 모욕하였다.

이에 유가족들과 각계층은 《실종 자와 가족을 두번 죽이는 행위》,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도 모르는 패륜의 무리》, 《추악함과 비렬함의 극치》, 《한을 품고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령혼들을 모독하고 유가 족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어놓고있 다.》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

그야말로 패륜패덕과 사회악이 판을 치고 조상전래의 풍속과 인륜 이 무참히 말살되여가는 야수화된 사회, 최악의 인권불모지인 남조선에 서만이 볼수 있는 말세기적참경이

《세월》 호참사는 반인권적 반인민적정치의 필연적산불

《세월》 호대참사는 결코 악덕업 주나 몇몇 해운관계자들에 의해 빚어 진 비행의 산물이 아니라 철두철미 괴뢰당국의 반인권적이며 반인민적 인 정치가 빚어낸 필연적결과이다.

원래 《세월》 호는 수명이 훨씬 지나 파철이나 다름없는 중고품을 사들여온데다가 제멋대로 구조를 변 경시키고 수리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당시 정량의 3배 나 초과된 화물을 실었다.

그러나 괴뢰당국은 실태를 뻔히 알 면서도 안전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합격판정을 내리였으며 선장과 선원들이 자격미달자들이였지만 승 선을 눈감아주었다. 항행도중 선장이 휴식하면 항해사자격이 있는 일반선 원이 조타를 잡아도 된다고 《선원 법》을 뜯어고친 놀음을 벌린것도 괴뢰당국이다. 뿐아니라 이미전부터 려객선들의 잦은 고장과 상습적인 정원초과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아가 는데 대한 우려와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으나 괴뢰패당은 그것을 외면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당국은 《세월》 호침몰사고가 일어나자 그 것이 돈에 환장한 려객선의 소유주 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때문인 듯이 여론을 내돌리였다.

그리고 유병언의 도주와 수색놀음 을 연출하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형 체도 알아볼수 없는 시체만 찾아놓 고는 모든 책임을 죽은자에게 뗘넘 겨버리였으며 선장을 비롯한 몇몇 송사리들을 재판에 걸어 처벌하는 놀음으로 사건을 무마해버리려 하

괴뢰당국것들은 《세월》 호침몰후 수백명의 승객들이 바다물속에서 숨 져가며 살려달라고 피타게 호소하고 있을 때 구조대책은커녕 책임회피에 만 급급하였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 실장이였던 김장수는 안보실은 재난구조를 지휘 하는 사령탑이 아니라고 하면서 구조에 낯도 돌리지 않았으며 안전 행정부 장관은 한 경찰학교졸업식참 가도중 사고판련 보고를 받고도 자 기 소판이 아니라고 외면하였는가 하면 괴뢰정보원은 침몰사고를 맨 먼저 알고서도 모르는척 하였다.

구조현장에 내려간 괴뢰국무총리 라는자는 고급호텔의 온돌방에 자빠 져 태평스레 잠을 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지어 청와대 안방주인은 《세월》 호침몰사고를 통보받고도 생사를 다 투는 그 시각에 7시간동안이나 자리 를 비워놓고 딴장을 보아 비난, 조소 거리로 되였다.

그런가하면 선장과 《오래동안 묵 인하고 쌓여온 잘못된 관행》에 사 고의 책임을 넘겨씌우면서 민심을 기만해보려 하였다.

뿐만아니라 청와대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비발치자 수십일이 지나서 마지못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속에 없는 《사과》놀음을 벌리고 그것이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자 괴뢰국무총리를 제물로 내던지는 기만극도 서슴지 않았다.

오죽하였으면 《월 스트리트 져 널》, 《뉴욕 타임스》, 《가디언》 을 비롯한 미국과 서방언론들까지 《최악의 참사》, 《전세계를 경악시 킨 대참극》,《사고가 아닌 인재》 등으로 대서특필하면서 이번 참사는 전적으로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 의해 일어난것》이라고 신 랄히 비난, 규탄하였겠는가.

《세월》 호대참사가 일어난 후에 도 남조선에서는 괴뢰패당의 반인민 적통치로 서울지하철도 전동차충돌 사고, 전라남도 장성군의 한 병원과 경기도 고양시의 주차장에서의 화재 사고와 경기도 성남시에서의 야외 공연장붕괴사고 등 각종 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남조선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전체 주민세대 의 45%에 달하는 700여만세대가 제 집이 없어 뜨내기살이를 하고 완전실업자는 450여만명, 반실업자 는 1 000만명에 이르고있다.

극도의 생활고에 몰리다 못해 스 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 오늘 남조선은 《자살왕국》 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하나의 거대한 인간생지옥으로 전 락된 남조선에서의 여론조사에서는 60%이상이 《만일 이 세상에 다시 태여난다면 다른 나라에서 태여나고 싶다.》고 개탄하였다.

괴뢰패당의 반인권적이며 반인민 적인 정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제2, 제3의 《세월》 호참사가 계속 일어 날수밖에 없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층 의 민심이다.

괴뢰패당이 남조선사회를 이처럼 참혹한 인권페허지대, 인간생지옥으 로 만들어놓고도 그 누구의 《인 권》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며 인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남조선피뢰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세월》 호대참사의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으며 전대미문의 반인권적, 반인민적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심판대에 나서야 한다.

만일 괴뢰패당이 《세월》 호대참 사의 진상을 덮어버리려고 계속 교 활하게 놀아댄다면 남조선 각계층의 더 큰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며 광범한 대중적항거의 폭발 에 의해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11월 11일 평 양

미뢰패당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은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공화국 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전쟁 연습을 벌려놓은것과 관련 하여 11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79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괴뢰패당이 지난 10일부터 《년례적인 훈련》이라는 미명하 에 남조선 전지역에서 대규모의 《2014 호국》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오는 21일까지 감행되는 이번 《호국》훈련에는 지난 시기의 4배이상인 33만여명의 괴뢰군 병력과 기동장비 2만 3 000여 대, 함정 60여척, 각종 비행기들 이 동원되여 《전방군단 작전계 획시행훈련》, 《서북도서방어훈 련》, 《해상, 해안침투훈련》, 《합 동상륙훈련》등을 벌리게 되며 미제침략군과의 합동훈련도 여러차례 진행할것이라고 한다.

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이른바 《호국》훈련은 그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철두 철미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 한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호전 팡들은 이번 훈련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한 《최고도의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내놓고 지껄여대고있다.

지금 괴뢰군부패당은 공군비행 단들의 대규모전투태세훈련과 피 뢰군 2군단을 비롯한 전투병력들 의 실전을 가상한 야외기동공격 아닌 괴뢰역적패당이다. 훈련을 벌리고 서해열점지역에서

___ 서북도서방위사령부판하의 륙, 해, 공군병력과 증원부대병력을 총동원하여 상륙작전훈련 등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얼마전까지 《고위급접촉》이

요 뭐요 하며 입이 닳게 떠들던 괴뢰패당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켜놓고 《호국》훈련을 력 대 최대규모로 벌려놓고있는것 은 그들이 실지로 대화를 하자 는것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책동 의 흉심을 버리지 않고 대화를 한갖 위장물로 리용해보려고 하

였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더우기 괴뢰패당이 그 누구의 《국지도발》이니, 《전면전상황에 대한 대응》이니 뭐니 하는것을 훈련의 명분으로 내세우고있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현실은 《국지도발》을 런이어 일으키고 《전면전쟁도 불사하겠 다. 》고 떠들면서 북침전쟁연습 에 미쳐날뛰는것은 괴뢰패당 자신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근에도 괴뢰패당은 서해해 상과 군사분계선 우리측 지역에 서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하는 우리 함선과 군인들에게 마구 총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도발 을 수차례나 감행하였다.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의 반공 화국삐라살포망동을 계속 비호 두둔하면서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대결광신자들도 다름

괴뢰패당이 《호국》훈련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는것은 미국 상전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 여 북침핵전쟁준비를 더욱 완성 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또한 범죄적인 전시작 전통제권전환의 무기한연기를 정당화하고 극심한 군기문란으 로 땅바닥에 떨어진 괴뢰군의 사기를 추세워 그들을 북침전쟁 의 돌격대로 내몰려는데 있다. 괴뢰집권자가 밖에 나가 《대 화》를 떠들고 《동북아시아평화

와 협력》이요 뭐요 하고 요사스 럽게 외워대는 이 시각 남조선 에서 전례없는 규모의 북침전쟁 연습이 벌어지고있는 사실은 겉 과 속이 다른 괴뢰패당의 추악 한 정체를 만천하에 그대로 드 러내고있다.

이것이 바로 괴뢰패당이 뗘드 는 《신뢰》와 《평화》타령의 진짜 내막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패당 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책동 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괴뢰패당의 대결적정체를 똑바로 보고 북침 전쟁연습책동을 규탄단죄하는 목소리를 높여 단호히 저지파탄 시켜야 할것이다.

재도이췰란드동포 리준식이 10월 30일 남조선괴뢰패당 의 친미굴종행위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남조선당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미국이 좌지우지하게 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 과 각계가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의 무기한연기를 선포한 1 0월 24일을 《안보포기를 선언한 치욕의 날》로 개탄하면 서 미국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려 있는 박근혜를 규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박근혜가 지난 《대통령》 선거때 어떤 일이 있어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20 1 5 년까지 돌려받겠다고 약속한것이 결국은 《국민대 통합》.《경제민주화》.《기 였다.

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무기한연기에 합의해준 대가 로 미국이 강요하는 모든 압

《미국의 핵은 안전하고 동족 의 핵은 위험하다.》는 생각자 체가 뼈속까지 친미사대의식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중 군사주권을 통채로 외세에, 그 남조선미국관계의 산물이라고

규 내맡긴것은 미국의 식민지 남조 선밖에 없다고 담화는 강조하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전 시작전통제권을 포기한 괴뢰딩 국의 처사를 비난하여 얼마전 글을 실었다.

글은 남조선보수세력들속에 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 사하는데 대해 정당화하는 맛발 이 쏟아져나오고있다고 비난하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지고있 는 나라들도 전시작전통제권만 은 미군에 맡기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맡긴것은 기형적인



《세월》 호참사진상규명을 요구해나선 남조선인민들

전 라 북 도 에 서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 면 7일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수많은 오리와 오리알이 매몰 의한 피해가 계속되고있다.

처리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출입

조 류 독 감 이 차단되였다. 전라북도에서는 올해초 고창 군과 부안군일대에서 조류독감 이 발생한것을 비롯하여 이에

【조선중앙통신】

위해서인가, 포기하기 위해서인가

남의 비위를 맞추고 외세에 의존하는 괴뢰당국의 너절한 본성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또

다시 드러났다. 남조선당국은 지금까지 말로 는 《과거사문제해결》을 운운 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주대를 세우는듯이 으시대왔다.그것이 저들의 비굴한 친일추종자세를 가리우 기 위한 서푼짜리 기만극이였다 는것을 최근의 사실은 여지없이

지난 1일 괴뢰당국은 독도에 시설물을 건설하기로 하였던것 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리유는 안전관리, 환경문제

폭로해주고있다.

등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여론의 평가는 다 르다.

남조선언론들이 입수하여 폭

로한 《관계장관회의문건》에 의하면 괴뢰당국자들은 건설취 소에 따른 《관계자설득 등 대 응》을 위해 《이미 정한 대응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한목소 리로 대응》하며 그것이 사회적 론난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양 수산부 당국자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하 는 등 《초기대응》을 할데 대

한 지령을 떨구었다고 한다. 지어 다음해예산편성에 독도 시설물건설비용이 《반영되지 지 짜놓았다고 한다.

게 하자는것이다. 내막이 폭로되자 괴뢰국무 총리실은 《독도시설건설을 포기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느니,《추가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로 했다.》느니 하고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있다. 그러나 누구도 그에 귀를 기 울이지 않고있다.

하다면 괴뢰당국이 구차한 《대응책》을 고안해내면서까 지 이미 결정했던 독도시설물건 설을 취소한 까닭은 무엇인가. 남조선 각계에서는 그를 두고 괴뢰당국이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 굴종외교를 일삼고있다는 비난과 규탄이 비발치고있다.

틀린 주장이 아니다.

괴뢰당국은 집권초기부터 이 른바 균형외교를 들고나와 《일 본과 돈독한 신뢰를 쌓겠다.》 고 공언하면서 친일굴종자세를 로골화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괴뢰들은

《관계개선》의 미명하에 일본 과의 결탁을 보다 강화하고 지난 10월 일본 국가안전

보장국장이 남조선을 행각하였 다. 남조선과의 관계강화를 위 해서라고 한다. 청와대 안보실장과 괴뢰외교 부 장관 등 괴뢰고위당국자들은

줄줄이 그를 찾아가 《미래지향

적관계구축》이니, 《동맹강

화》니 하고 별의별 노죽을 다

부렸다. 그리고는 《일본과의

고위급협의통로가 구축되였

니다. 얼마전 일본정부가 헌법해석 을 변경하여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겠다는 립장을 공 식적으로 밝힌것은 그들의 대조

있다.

10년째 우리 나라 고유의

령토인 독도가 《다께시마》로 다.》느니, 《지역의 평화와 안 정에 기여한다.》 느니 뭐니 하 표기되여있다고 한다.

> 화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립증 해주고있다. 재침의 칼을 시퍼렇게 벼리는

> 대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동족대 결야망이 골수에까지 들어박힌 나머지 민족의 운명은 아랑굣도 않고 재침을 꿈꾸는 위험한 침

현 보수당국이 친일매국근성

《유신》독재자의 친일바통 을 그대로 물려받은 현 집권세 력의 행적은 걸음걸음이 치욕스 러운 대일굴종으로 일관되여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규탄 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협 정체결에 발광한것도 괴뢰패당

이번에 괴뢰당국이 독도시설

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친일매국노 적기질의 발로외에 다른것이 아

괴뢰당국자들의 추태가 얼마 나 비굴하였으면 일본당국자가 남조선을 《어리석은 지역》이 라고 로골적으로 빈정댔겠

는가. 남조선언론들까지도 《일본 인들의 오만한 태도보다도 우리 의 저자세가 더 문제이다. 생각 해보면 여태껏 일본은 우리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언행들을 수없이 해왔다.심심하면 독도 가 자기네들땅이니 어쩌니 하기 도 하고 소위 일본정부를 대표 한다는 수상이나 각료들이 망발 을 한것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제 한번 호되게 따지지 못했고 면박을 주지도 못했으며 결말을 시원하 게 맺은적은 더구나 없다.》고

이다.

사대매국노들의 추악한 친일

을 지키자면 민족의 리익을 팔 아 기생하는 사대매국노들부터 제거하여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

본사기자 은정철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비정규직 철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민주로총소속 로동자 3만여명 서울에서 투쟁

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 문 《참세상》에 의하면 민주 로총이 9일 서울에서 대규모 의 로동자집회를 가지였다.

단체소속 3만여명의 로동자 들과 산하로조단체성원들 그리고 《세월》 호참사유가족 들과 농민, 빈민단체대표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여기에 참가 하였다.

집회에 앞서 로동자들은 청 계광장에 모여 《박근혜정권 퇴진》 등의 구호판을 들고 대 학로까지 시위행진을 벌렸다.

민주로총산하 로조단체들도 서울의 곳곳에서 집회들을 가 지고 투쟁열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대학로에서 집회가 진행되였다.

총의 지나온 투쟁력사를 총화 하고 로조운동을 더 힘있게 벌 려나갈데 대해 언급하였다. 수많은 로동자들이 비정규직

으로 고통받고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뭉쳐 투쟁하고 각계가

련대하면 로동자, 농민, 빈민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수 있다

고 토로하였다.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해 끝까 🏻 지 투쟁할것이라고 언명하

뭉쳐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앞으로 단체가 모든 로동자

의 기본권보장, 《세월》 호참

사회를 《세월》 호처럼 내버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민주로 려둘수 없다고 하면서 각계층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조선사회에 만연되여있는

의 기근교도 6, 3개교 사진상규명, 안전한 사회의 ▮ 않도록 대응》할데 대한 대책까 건설을 위해 각계층이 런대하 는 사회적투쟁에 더욱 힘차게 괴뢰당국의 립장은 한마디로 떨쳐나설것이라고 그들은 강조 말하여 독도에 다시는 시설물을 건설하지 않으며 그에 대해

초년금》 등 공약과 마찬가지 로 당선을 노린 사기극들중의

> 박을 남조선인민들이 고스란 히 떠안게 되였다고 개탄하

배인자들만이 가질수 있는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것도 제가 먼저 애걸복걸하여 글은 주장하였다.

고 큰 성과라도 거둔듯이 환성 을 올렸다. 실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망동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한편 일본당국자들은 괴뢰들 과의 접촉을 그 어느때보다

> 강화하고있다. 지난 2월 일본당국의 고위급 외교관계자가 남조선을 행각하 여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한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거의 매달 정기적 으로 외교당국자들간의 회담을 벌려놓고 《긴밀한 공조》구축 을 추구하는 등 괴뢰들과의

여기에는 남조선과 미국,일 본의 3각군사동맹을 강화하려 는 미국의 입김도 작용하고있지 만 보다는 남조선을 재침야망 실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일본 반동들의 교활한 기도가 깔려

결탁을 강화하려고 획책하고

일본이 이미전부터 조선재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에 발광해왔다는것은 비밀이 아

선재침야망이 극히 무분별한 단 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시사해 주고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일본방위성 이 작성한 일본방위백서에는

사실들은 일본의 재침책동이 단순한 야망단계를 벗어나 현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이 있다면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각성있게

략세력과 서슴없이 결탁하는 길 로 나아가고있는것이다. 이 체질화된 반역패당이라는것

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있다.

이고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축 복》이라고 넉두리를 탕탕 줴쳐 대는 천하의 매국노를 《총리》 후보자로 선출하는 망탕짓을 서 슴지 않은것도 이 반역아들이며 지어 독도표기와 관련하여 독도 와 《다께시마》로 함께 표기하 게 하여 단독표기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밀지침이라는 것을 외국주재 괴뢰대사판들에 내돌리는 죄악을 저지른 역적들 도 바로 현 집권세력이다.

니다.

개탄을 금치 못하고있는 형편

실로 기막힌 비극이 아닐수

굴종행위로 하여 오늘은 독도의 주권이 롱락당했다면 래일은 민 족의 운명이 통채로 100여년 전의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굴러떨어질수 있다. 현실은 민족의 자주권과 운명

을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바치신

오늘 인류의 자주위업은 승리의 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돌이켜보면 그 승리적전진은 결코 저절로 마련된것이 아니다. 위인의 천 재적인 사상리론과 예지를 떠나 승리 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이 바로 인 류의 자주위업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 자주위업을 수호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령도자 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은 우리 당파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 지침이며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 과 생활력이 확증된 백전백승의 기치입니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류앞에 쌓아 올리신 거대한 사상리론적업적가운데 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는것은 현대 제국주의의 특징과 그 침략적본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인민 대중이 반제투쟁에 적극 펼쳐나서도 록 하심으로써 인류의 자주위업을 수 호하고 그 승리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 해주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 시던 주체 5 1 (1 9 6 2)년 1월 1 5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본성에 대하여》를 발 표하시였다.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 를 해부학적으로 폭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인류의 자주위업수 행에서 항시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으로 되였고 반제투쟁 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당시 현대제국주의를 정확히 분석 평가하는것은 매개 나라 혁명과 인류 의 자주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전 술을 옳게 세우며 그 승리를 앞당기는 데서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시대적과 제로 나섰다.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의 침 략수법은 지난날과 대비해볼 때 일련 의 차이가 있었다.

지난날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였던 조건에서 서로 경제적리권과 식민지획득을 위하여 물고뜯는 싸움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후부터는 사 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혁명력량을 파괴말살하는데 침략과 간섭의 주되 는 화살을 돌리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날로 장성강화되는 반제자주력량을 말살함으로써 뒤흔들 리는 제국주의체계를 유지하기 위하 여 발악하고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위협》이라는 기만적구호를 들고 공산당을 비롯한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을 탄압 하고 파쑈체제를 수립하고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 한 반제자주력량을 공격하기 위하여 미제의 지휘밑에 반사회주의전선을 형성하는데로 나가고있었다.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국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세계도처에 서 국부전쟁과 특수전쟁을 도발하고 전면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날뛰고 있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 주의자들은 혁명력량을 말살하기 위 한 침략전쟁을 직접 도발하기도 하였 지만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앞에 내

세우고 뒤에서 조종하기도 하였다.

현대제국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자

주의식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 조 건에서 보다 교활하게 침략책동을 벌 렸다.

현대제국주의침략의 교활성은 《평 화》와 《협조》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혁명력량을 내부로 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음흉하게 책 동하고있는데서 나타났다.

지난날 작고 약한 나라들을 아무 거 리낌없이 무력으로 공격하고 경제적 리권을 탈취하거나 식민지로 만들던 제국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부 터는 한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손에 는 감람나무가지를 흔드는 교활한 량 면전술에 매달렸다. 제국주의자들이 량면전술을 들고나오게 된것은 혁명 력량과 정면으로 맞설만 한 힘을 가지 고있지 못한데 있었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친선》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혁명력 량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내놓은 《평화전략》 은 뒤집어놓은 전쟁전략이며 교활하 고 음흉한 침략계획이였다. 제국주의 자들이 떠벌이는 《평화》와 《친선》의 리면에는 파괴와 교란, 침략과 간섭의 기도가 숨겨져있었다. 미제가 세계 이 르는 곳마다에 설치한 군사기지를 어 느 하나도 철페한것이 없고 해외에 주둔시킨 침략군대를 철수한 일이 없 으며 오히려 체계적으로 늘이고있는 것, 제국주의자들이 해마다 군사비지 출을 늘이며 새 전쟁준비에 미쳐날뛰 고있는것 등은 이에 대한 명백한 실 증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제사회 주의운동안에 기여든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고 그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고있었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가 침략적 이 아니며 《리성》적이라고 하면서 제 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할데 대한 기 회주의적이며 반혁명적인 리론을 내 놓고 그것을 합리화하였다. 이것은 제 국주의의 핵공갈정책에 겁을 먹고 무 릎을 꿇는 투항주의적행위였으며 인 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대한 비렬한 배 신이였다.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배 신행위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를

제국주의의 진면모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수정주의자들의 궤변에 사람 들이 속아넘어가 반제투쟁을 포기하 게 될 때 인류의 자주위업은 좌절을 면치 못할것이였다.

이처럼 준엄하였던 시련의 시기에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정주 의자들의 투항주의적견해의 허황성을 폭로하시고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를 만천하에 발가놓으시여 인류를 반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심으로써 인 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좌절의 위험에 서 구원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현 대제국주의는 단순히 독점의 지배에 기초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국가독점자 본주의를 정치경제적기초로 하고있으 며 구식민주의가 아니라 신식민주의 에 의거하고있으며 서로 병렬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미제를 우두머 리로 하여 종속적으로 재편성되였으 며 장성강화되고있는것이 아니라 급 속히 쇠퇴몰락하면서 최후발악하고있 는 제국주의이라고 명확히 밝혀주시

그후 변화되는 국제정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로작의 정당성

을 현실로 증명하였다.

불멸의

력사적인 로작이 발표된지 불과 몇 달후 제국주의자들은 까리브해위기를 조작하여 세계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 협하였으며 2년후인 1964년 8월에는 《평화》의 허울을 벗어버리 고 바크보만사건을 날조하여 윁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현대제 국주의의 화약내나는 침략과 간섭의 력사는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는 것처럼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이 변 할수 없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 인 예언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뚜 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로작이 안고있 는 진리의 힘은 오늘도 남김없이 발휘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수법을 바꾸면 서 아무리 교활하게 책동하고 횡포하 날뛰여도 진보적인류는 반제투쟁 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위업을 힘있 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2 1세기에 감행한 여러 침략전쟁 들과 금융위기로 하여 제국주의의 쇠 퇴몰락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있 다. 제국주의의 힘을 이루는 두 기둥 인 핵우세와 딸라금융통화제도가 붕 괴되고있다. 인류는 멸망의 구렁텅이 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제국주 의의 몰골을 톡톡히 보고있다.

인류의 자주위업을 반제투쟁으로 되게 하시여 그 승리적토대를 마련하 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영원불멸 할것이다.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등대로 하여 반제자주 를 위한 투쟁에 계속 힘차게 떨쳐나서

이 란 에 서

비해 6% 늘어난것이라 한다.

에 대해 밝혔다.

10월 22일 이르나통신이 이

또한 이란이 3월 21일에 시

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6개월

동안에 700만 t 이상의 세멘트

를 수출하였다. 10월 21일 이

르나통신이 이에 대해 밝혔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방안, 10. 4선언을

캄보쟈, 이란신분이 소개

캄보쟈신문《꼭 쏜때피앱》10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월 13일부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 립방안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80년 10 월 10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선반도의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 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 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 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 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 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 화국을 창립하는 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의 통일위업은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력사적인 10. 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하여 이란신문 《이란 뉴스》 가 《10.4선언발표 7돐》이라는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북 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

언이 채택되였다. 10.4선언의 목적은 우리 민족 끼리의 정신에서 나라의 통일문제 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 의 존엄과 리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키는데 있다. 선언은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며 조 선민족의 리익을 위한 모든 문제

를 포팔적으로 명시하고있다. 선언은 조선민족의 의사를 반영하 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군 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 를 개선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가 져오게 하는 중요한 문건으로 된다.

10. 4선언은 조선민족이 통일운 동을 보다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적공모결탁을 규란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 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 회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 한 연기하기로 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합의에 항의하여 공동성 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얼마전 워싱톤에서 진행 된 46차 미국남조선년례안보협의 회에서 미국이 2015년까지 남조 선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 로 하였던것을 또다시 무기한 연 본사기자 리경 수 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다

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한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남조선이야말로 미제국 주의의 완전한 통제와 지배를 받 는 식민지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

히 증명해주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 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 에 단호히 대처해나갈데 대한 조 선의 호소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는 진리이다 과 학 이 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 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신 20 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 원회가 10월 23일 인터네트홈 페지에 기념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작 《사 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 신 때로부터 20년이 된다.

당시로 말하면 세계사회주의

운동이 심각한 곡절을 겪고있던 시기였다.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가 좌절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동경해

였다.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비트에 글 게재

온 많은 사람들속에서 사상적혼 란과 동요가 일어났다. 사회주 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리념자 체가 잘못된것이였다고 하면서 저들의 배신행위를 정당화하였 고 제국주의대변자들은 《사회주

의의 종말》을 떠벌이였다. 이 엄혹한 시기 조선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 운동의 새로운 앙양파 필승의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로작 《사 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 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

너진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

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 미한다고 선언하시였다.

글은 로작의 상세한 요지를 서 술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가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 르는 20년간은 로작의 정당성 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나날이였다.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조선인민 이 백승을 떨쳐온것은 그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필승의 신심이 있었기때문이다. 그 신념, 그 신심으로 조선인민

은 오늘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반사회주의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사회주의강 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 🤇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flat}$ 였다. 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운동이

현실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 변자들이 떠벌이는 《사회주의의 종말》론의 허황성과 함께 사회 주의는 과학이고 진리이며 인류 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어길수 없는 력사의 법칙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되였다.

승리한다.

로씨야해군이 최근 바렌쯔해 수역에서 대륙간탄도미싸임 《씨네바》를 성과적으로 발사하

로 씨야에서

로씨야북함대의 원자력잠수 함 《뚤라》호가 잠수상태에서 발사한 미싸일은 깜챠뜨까의 꾸라사격장에 정확히 착탄되 였다. 5일 로씨야국방성이 이 에 대해 밝혔다.

또한 로씨야에서 6일 운바로 케트 《드네쁘르》를 쏴올렸다. 우주기구 《아스나로》와 4개 의 소형위성을 탑재한 운반로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반드시 > 케트는 야스느이우주발사장에

▲서 발사되였다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올해 9월에

로씨야국방성 전략로케트군 무역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 된다고 한다. 대변인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해 1.6% 증대되였다. 7일 이 나라 국제무역공업성

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이란에서 올해 첫 9개월동안 말레이시아에서 8월에 실업 에 전국적으로 1 206만 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 000 t의 강철을 생산하였다. 0. 4% 줄어들어 2. 7%에 달하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였다.

> 10월 24일 이 나라 통계국 이 이에 대해 밝혔다. 캄보쟈에서

캄보쟈에서 직업교육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나라에 서는 가까운 앞날에 5만

먄마에서 먄마에서 에이즈방지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8일 이 나라 보건성은 현재 에이즈비루스감염률이 1년전의 0.95%로부터 0.4%로 낮아 졌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4일 집짐승먹 이첨가제공장이 새로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공장에서는 먹이첨가제로 쓰 이는 메티오닌과 아미노산을 생산하게 된다.

공장의 년간생산능력은 15만 t 에 달한다.

5 000명이상의 근로자들이 직

업양성소들에서 교육을 받게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 사람들이 영웅인지 지어는 제2 영웅적으로 싸운데 대해 상기시 키는데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 찐이 최근 력사학자, 교원들과 차 세계대전이 있었는지 없었는 키고 청년들이 자기 나라의 력 나라의 대외정책에 대해 언명 의 담화석상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도 모르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사를 모르는것은 국가에 있어서 하였다. 하였다. 우려를 표시하였다. 가장 큰 실책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정부가 내세우고있는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그러면서 그는 이를 바로잡을 그는 위대한 조국전쟁시기 쏘 대외정책의 기본은 민족의 리 서 공동의 리익과 호상존중의 ₹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익을 도모하는것이라고 하면 원칙을 견지할것이라고 그는 강출떨어져 련속 3개월째의 감소를 그는 현시기 청년들이 자기가 련군대와 인민이 조국을 지켜 것을 력사학자들과 교원들에게

로씨야대통령 청년들에 대한 력사교육을 잘할데 대해 강조

호소하였다.

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 천명 잠비아외무상이 최근 자기 이룩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

서 특히 사회적안정과 평화를 조하였다.

사람들은 팔레스티나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추가건설은 평화와 량립될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전국적인 살림 집건설착공량은 14.3% 줄어들 었다 한다.

한편 일본의 한 경제단체가 10월 20일 조사자료를 인용 하여 9월에 전국의 일욧품소 할매업체들에서 판매량이 지난 이 거주할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것 🕻 해 같은 달보다 1.3% 줄어들 도 로골적인 평화파괴행위로서 국제적비난을 받 었다고 밝혔다.

또한 네데를란드의 필립스전 조자제품회사에서는 3,4분기에 찾겠다는 이스라엘의 《약속》이 한갖 기만에 지나 🕏 초래된 리윤손실액이 1억 300 지 않는다고 하고있다. 지어 미국까지도 정착촌 ₹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 영국에서도 계속되는 경제침 하였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뭇매를 맞지 않으 체로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이 악

려거든 령토팽창야망을 버리는것이 좋을것이다. * 화되고있다. 리 현 도 5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은

△일본자동차제작업자협회는 10월에 봉사부문 기업체들의 경 ₹10월 30일 조사자료를 인용하 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그 혔다.

> 프랑스에서는 8월에 예산적 자가 941억€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억€ 더 늘어난것이라

△미국에서 지난 10월 18일 까지의 1주일동안에 새로 등록 된 실업자수가 28만 3 000명 에 달하였다.

10월 23일 미로동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또한 프랑스에서 9월에 실업 자수가 그 전달에 비해 1만 9 200명 더 늘어나 340여만 명에 달하였다.

10월 24일 이 나라 로동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에스빠냐에서 채무위기의 후 과로 실업형편이 의연 심각하다

10월 23일 이 나라 통계국은 3. 4분기에 실업률이 23. 6 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고 한다.

△ 뽀르뚜갈의 브라겐까에서 5일 34명의 남녀를 끌어다가 노예생활을 강요한 3명의 범죄 자가 체포되였다.

이보다 앞서 3일 이딸리아의 깜빠니아주에서는 각종 범죄를 일삼던 34명의 범죄자들이 적

발되였다 한다. 또한 카나다의 오타와에서 10월 22일 련이은 총기류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 였다. 이날 국회청사와 상점거리 등 3곳에서 일어난 총기류범죄로

3명의 사상자가 나고 공공건물 들과 외국대표부들이 문을 닫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조선중앙통신】

운동(하마스)이 5일 성명을 발 표하여 이스라엘의 탄압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팔레스티나의 이슬람교항쟁

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날 이스라엘군이 동부꾸드 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을 봉

마하마가 6일 서아프리카경 제공동체 특별회의에서 연설 **전** 하면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 과의 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병 원침대와 개인보호설비의 보 장 등 문제들이 사활적으로 를 제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이 전염병으로 지역나라들에서 부정적후과가 초래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 면서 국제사회가 피해를 가시

위

한

노

对

탄 압 만행 이 스 라엘의

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팔레스티 나인들에게 사격을 가한것과 관 련하여 성명은 이를 꾸드스와 이슬람교사원을 유태화하려는 불법무도한 행위로 락인단죄하

-가나대통령 죤 드라마니 기 위한 사업에 판심을 돌려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알제리가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 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에볼 라비루스피해가 심각한 서아 프리카나라들과의 무역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지의 비행장과 항

구, 국경초소들에 검역설비들 을 설치하는 등 방역대책이 취해졌다고 한다. -적십자국제위원회 위원장

이 최근 로씨야 따쓰통신과의

회견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

유태복고주의정권은 이러한 범죄적행위를 감행한데 대해 값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표시하였다. 전파가 지금도 계속되고있으셨을 끌고있다. 며 환자수는 매일과 같이 늘 께 발병지역들에서 심각한 불 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후과가 초래되고있다고 하면 한 난문제의 하나》로 된다고 {

말하였다. 그는 적십자국제위원회가 해당 나라들에서 취하고있는 { 구제조치들을 방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0

북극을 둘러 첨예화되고있

다. 로씨야와 미국, 카나다를

최근 나토가 북극에 눈독을 그는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의 ∮ 들이고있는것이 국제적인 주목

고집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

였다. 로씨야의 우려는 공연한것이 아니다.

이다. 현재 북극권을 둘러싼 관계국 들의 움직임이 맹렬하다는것은 이미 알려져있다.

할수 있다. 특히 북극의 얼음산 밑에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풍부 하다.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하 지 못한 천연가스의 30%, 원 ◆ 유의 13%가 매장되여있다고 한다. 북극을 장악하면 원유와

의 연구대상으로만 되여왔던 북 극이 오늘 연안국들사이의 다국 적인 대결마당으로 뒤바뀐 리유 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남극과 달리 북극에는 륙지가 없으므로 그의 령토주권을 규제한 명확한 법적틀거리가 없다.

북극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련 결하는 잠재적인 해상통로,대 규모어장으로 될것으로 예측되 면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

지 않은 나라들이 너도나도 북 극쟁탈전에 뛰여들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극을 차지하기 위한 연안국들사

이의 세력싸움으로 이 지역에

군사적대결기운이 날로 높아가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극쟁탈 전에 뛰여든 나라이다. 랭전시 기 쏘미쌍방은 사상과 리념의 대결로부터 출발하여 북극의 얼 음산밑에 잠수함들을 침투시켜 서로 상대방의 미싸일을 타격할 목표를 세우고 정보전과 군사대 결전에 열을 올리였다. 지구의 한끝에까지 뻗쳐있던 두 대국사 이의 군사적대치상태는 랭전이 끝난 오늘에 와서도 그대로 이 어지고있다.

전략적리해관계의 대립은 불 피코 군사적충돌을 낳기마련 미국은 북극수역에 공격잠수

함들을 집중배치하는 한편 알라 스카와 그 주변에 레이다와 수 중음향람지기를 비롯한 첨단군 사장비들로 북빙양연안나라들 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견제하고 이에 대처한 로씨야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로씨야는 북빙양 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북극지대의 조건과 는 관계없이 생활과 전투임무수 행에 편리한 조건을 갖추어주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나라의 전략적리익이 집중되 여있는 북극지역개발을 위해 로 씨야는 오래전부터 힘을 넣어왔 다. 2020년까지 북극을 《주 요한 전략적자원기지》로 만드는 것이 로씨야의 목표이다.

이 지역개발을 군사적으로 뒤 받침하고있다. 지난 3월에는 로 씨야항공륙전대의 군인들이 처 음으로 떠다니는 얼음우에 락하 하는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 였다. 북극지역을 둘러싼 연안국들

의 각축전이 치렬해지고있는 때 에 굳이 나토가 자기의 무력을 투입하려는 리유는 북극에 대한 군사적영향력을 강화하고있는 로씨야를 견제하고 군사적우세 를 차지하자는데 있다. 로씨야는 나토의 적수명단에

서 첫자리에 올라있다. 랭전후 나토는 로씨야가 적수로부터 벗 으로 변하였다고 그럴듯 한 간 판을 들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것이였다.

문제는 로씨야를 제외한 북 극주변나라들이 모두 나토성원

결코 레외로 될 수 없다. 나토의 군사적움직임에 로씨야가 예민하게 반응하고있

는것은 이때문이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최근 한 회의에서 북극진지를 강화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부는 북극의 발전문제와 그 곳에서 자기의 진지를 강화하 기 위한 사업에 보다 큰 관심을 돌릴것이며 나라의 안전과 리 익을 고수해나갈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북극에는 나토의 참가를 요 구하거나 더우기 군사적해결을 필요로 할만 한 문제가 전혀 없 다는것이 북극에 대한 나토개 입을 반대하는 로씨야의 주장

이다. 북극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간 섭은 이 지역문제해결에 아무러 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있다.

북극은 평화와 안정의 지대로 되여야 한다. 나토가 만약 정치경제군사적

으로 예민한 북극지역을 자기의 작전무대로 하는 경우 그 후과 는 예측하기 어렵다.

대립과 충돌이 갈수록 첨예 화되는 북극지역이 열점지역 으로, 전쟁마당으로 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여론들은 평하 고있다.

본사기자 전 영 희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지, 어떤 마지막 피 한방울 남을 때까지 서방의 허위보도 배격, 적들의 제재가 실패하였다고 언명

이란의 한 고위관리가 1일 이

르나통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 라에 대한 서방의 허위보도를 배격하였다. 최근 서방의 보도수단들이 이 란이 원심분리기의 수를 줄이기 로 미국과 합의하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란정부는 평화적목적의 핵개발권리를 절 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말 하였다. 미국과 서방은 이란에

론회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 에 대한 적들의 제재가 실패하 였다고 언명하였다.

하였다.

적들이 이란의 평화적핵개발 을 가로막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였지만 이란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원쑤들의 제재를 물리치 고 핵에네르기분야에서 커다란 대한 제재를 즉시 중지해야 한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그는 강조

한편 이란부대통령이며 원자

력위원회 위원장인 알리 아크바

르 쌀레히가 10월 29일 한 토

최근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가 한 회의에서 팔

할수 없다. 요구하는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쩍하면 군사적공격 으로 대답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이스라엘군은 공 중과 지상, 해상에서 가자지대에 대한 무분별한

평화파괴자의 맥빠진 푸념질

레스티나를 규탄하는 국제공동체의 목소리를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세계는 팔레스티나의 행동에 침묵을 지키지 말고 규탄해야 한다고 떠 들었다. 그는 정착촌추가건설계획과 관련한 외부 의 비난은 현실과 동떨어진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그것을 강행하겠다는 소리도 하였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평화파괴자의 맥빠진 념불이라고 아니

간인들을 살해하였다.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사 람이라면 어떻게 이에 침묵을 지킬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가 장차 독립국가의 수

도로 삼으려는 동부꾸드스지역에 유태인정착민들 아 마땅하다.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은 독립국가창건을 공격작전을 벌려 수천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민

싼 쟁탈전이

비롯한 북빙양연안나라들은 말할것도 없고 다른 나라들까 의 계속되는 전파에 우려를 \S 이다.

> 로씨야외무상은 얼마전 나토 어나고 인적, 물질적피해와 함 🕻 의 북극지대주둔을 반대하는 자 안정이 조성되는 등 막대한 🖁 그는 나토가 오래전부터 북극지 서 이것이 《오늘날 가장 심각》 지금도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 대에 대한 주둔을 시도해왔으며 그 무슨 군사적요인에 대해

> > 나토가 북극쟁탈전에 뛰여드 는것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

북극은 자원의 《보물고》라고

가스시장을 장악하게 될것이라 는 전문가들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지난 시기에는 몇몇 탐험가들

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의 개발이 품이 많이 들지만 적 문제는 전략적가치가 높은 북

고있는것이다. 현시기 군사력에 의거한 북극 정책을 실시하는것은 그 어느 연안국이나 할것없이 마찬가지 이다.

있다. 로씨야는 북함대사령부를 북부 쎄베로모르스크에 두고 북 극해역방위를 위임하였다. 올해 에 들어와 발표한 《북극성》으로 불리우는 군인도시건설계획은

국들이라는것이다. 로씨야의 전 략적공간을 압축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의도는 북극지역이라고

편 집 위 원 회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제13003호) (취급승인 제3호)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neg -411761$